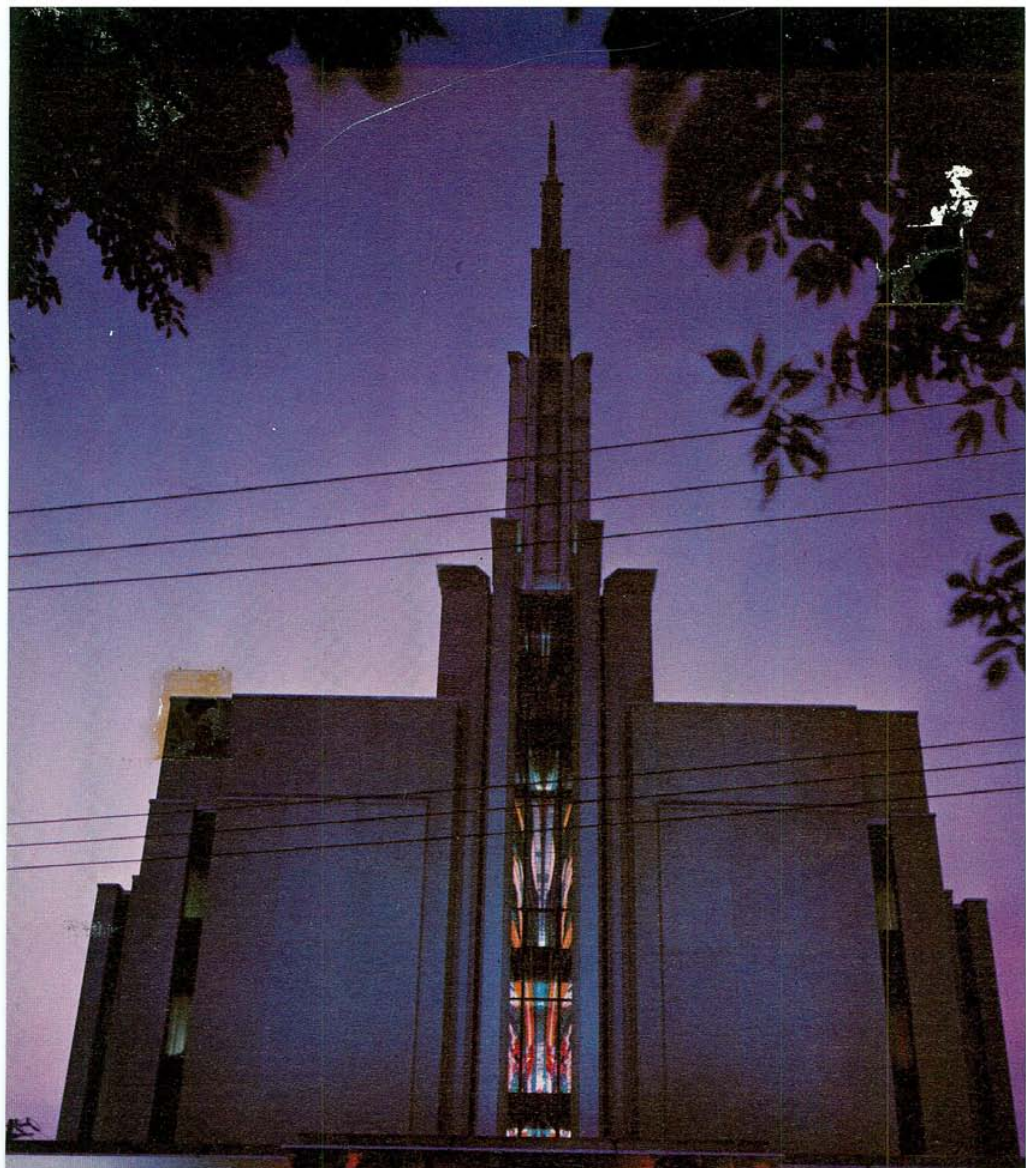




성도의 빛 10
1980



성도의 벗¹⁰ 1980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앤 엘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정원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콤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교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렉스 디 피네가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리
에프 엔지도 부쉬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8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200원이며, 1년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4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례

우리는 신전건립을 재의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2
주님의 집을 건립함.....캐럴 모지우스.....	7
동경 신전.....후지야 나라 동경 북 스테이크 축복사.....	16
왜 신전을 지을까요?고든 비 힐클리 장로.....	17
신전과 영원한 결혼.....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22
신전을 짓는 이유.....마크 이 피터슨 장로.....	29
신전을 향해서.....존 에이 윌소 장로.....	46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조셉 에프 스미스.....	50
아시아의 첫 신전	55
기꾸저 장로의 인사 말씀.....	58
신전장 메시지..... 드웨인 엔 앤더슨.....	61

동 권 : 제 183 호, 제 18 권 제 10 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0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 진 피 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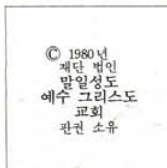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무채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733KO PRINTED IN SEOUL, KOREA 10/80



International magazine

우리는 신전 건립을 제의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1975년 8월 아시아에서 열린 지역 대회에서 킴블 대관장님은 동경 신전 건립을 발표했다. 이 소식은 이 지역에 사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좀더 가까운 곳에 신전을 갖게 되어 큰 기쁨을 안겨 주었다. 동경과 마닐라와 홍콩과 대북과 서울 등지에서 가진 대회에 모인 성도들은 오른손을 들어 신전 건립 계획에 동의하였다. 이 모임에 모인 성도들은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 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각 가정에서는 즉시 그들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와드와 지부와 스테이크는 신전 건립에 대한 분담금을 지불하기 위해 목표를 세웠

다. 이는 신전 건립을 위해 저축하고 희생하는 데 필요한 것일 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이 앞으로 완성된 신전을 방문하여, 그들을 위해 예비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

신전 건립 발표가 있는 지 5년이 지난 오늘날 신전은 완공되었고 주님의 집은 주님께 영예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워졌다. 이것은 곧 이 지역에 사는 교회 회원들의 헌신과 희생과 신앙의 기념비이기도 한 것이다.

신전 건립이 발표된 뒤에 앞으로 신전을 이용하게 될 성도들에게 하신 킴블 대관장의 말씀을 되새겨 보기로 하자.

동경 신전 해의 왕국실



© LDS



일본에서—1975년 8월 8—10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가 창세 이전부터 숨겨 온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한 일을 나의 교회에 드러내 보이려 함이라.’”(교성 124 : 41) 주님은 이 계시된 진리는 주님의 이름과 목적을 위해 세워진 집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름부음과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성회와, 기념식과 계시가 이 성스러운 장소인 신전에서 행해져야 하며, 시온의 기초에 관한 계시는 이곳에서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일들은 그가 건립하도록 명하신 이러한 건물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주님은 인디펜덴스, 미주우리, 미국 그 외의 지역에 신전을 위한 부지를 선정하셨습니다. 주님은 미국의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신전을 세워 그곳에서 그의 장로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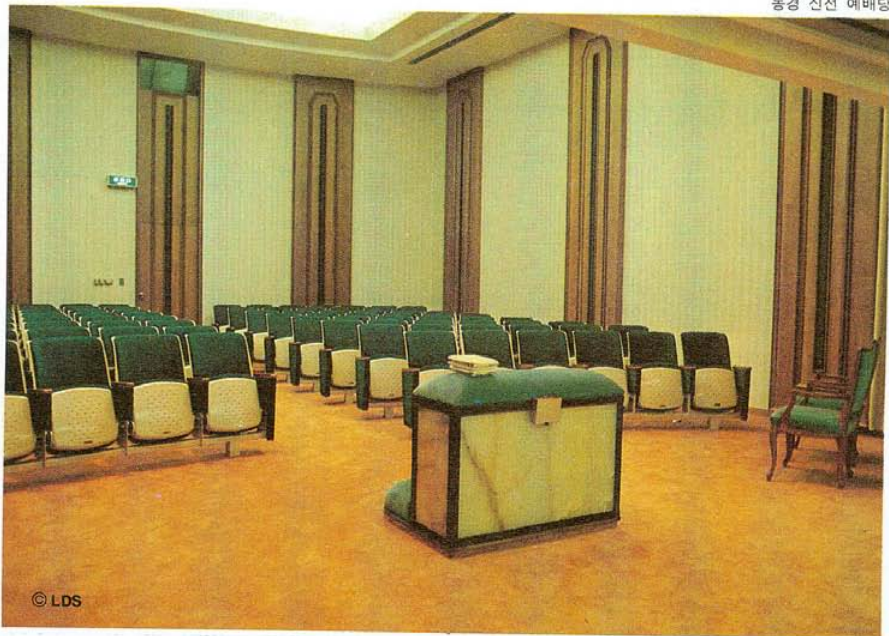
엔라우먼트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후 성도들이 정주하기 시작하여 교회 조직이 완성되자, 주님은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시고 신전 건립을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 안에 거하실 가장 높은 신 이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

“이는 저가 와서 너희가 잃었던 것 곧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버리신 것 곧 완전한 신권을 또다시 회복할 곳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음이라. 이는 저들 곧 나의 성도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받을 침례반이 이 세상에는 없음이니라.”(교성 124 : 27—29).

“이제 우리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세상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대한 일을 발표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중대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 스테이크 부장들과 그 외의 지도자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십이사도의 한

동경 신전 예배당



© LDS

분이신 매튜 카울리 형제는 아시아와 일본에 신전이 세워질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이 땅에 신전을 세울 날이 이를 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모든 아시아의 성도들을 위해 일본 동경에 신전을 세울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계보 사업을 행하고 계보 사업을 위해 걸음의 폭을 넓혀야 하며 주님의 신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 주기를 원하는 옥에 갇힌 자들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 : 7 ; 누가복음 4 : 18 참조) 바로 그러한 이유로 주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고, 신권을 부여하고 영의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 주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과 더불어 기뻐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어 여기서 행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과 성인들이 이 위대한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이 항상 깨끗하고 고결하여 이 신전이 지어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신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사 52 : 11)

“우리는 이미 돌아가신 자들을 돌보기 위해 신전을 건립하는 이 위대한 사업에 중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역에서 신전을 짓도록 영감을 주신 데 대하여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서—1975년 8월 11—12일

“일본은 아시아에서 교회의 중심이 되므로 일본에 신전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는 이 지역에서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결혼하게 될 모든 젊은 남녀는 이 성스러운 신전에서 결혼하기를 바라며, 돈을 저축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자녀는 성약의 자녀로 태어나 그 자녀들이 영원을 통해 영원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갖게 됨을 알며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필리핀 제도에서 교회에 들어온 모든 가족들은 신전에 가서 부모와 함께 인봉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만이 아니라, 지상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영원을 통해 인봉될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은 성약 아래 태어나거나 거룩한 신권에 의해 그들의 부모에게 인봉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필리핀에도 많은 성도들이 차고 넘쳐 이 나라에 신전을 짓지 않을 수 없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대만에서—1975년 8월 13—14일

“지난 토요일 일본 동경에서 그곳에 신전을 짓게 된다는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에 신전을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신전이 건립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일본에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위해 신전을 건립할 것입니다. 일본은 여러분의 나라에서 그다지 멀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모두 신전에 가서 성스러운 엔도우먼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젊은 남녀는 거룩한 신전에서 결혼 의식을 가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부터 시작하여 그때가 이르기까지 돈을 저축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전에서 의식을 마칠 수 있을 것임

니다.

“신전 사업을 행할 신전이 없다면 별로 큰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족 단위로 계보 자료를 부지런히 모으시기 바랍니다. 고대로부터 여러분은 가족 중심의 국민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보다 훨씬 쉽게 계보를 탐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대로부터 훌륭한 많은 조상을 모신 백성입니다. 많은 조상들의 대부분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교회에 가입할 것입니다. 신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에 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홍콩에서—1975년 8월 13—14일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 처음 공부했을 때 여러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복음의 진리는 신전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해 행하는 위대한 사업에 관한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영원한 결혼을 위해 거룩한 신전에 가기 위한 준비를 이미 세웠을 것이라고 확실하는 바입니다. 부모되시는 여러분은 가족을 서로 인봉하기 위해 거룩한 신전에 가도록 최선을 다해 돈을 저축하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신전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안에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신전을 세우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신전에서 수백만 수억의 사람들이 친례받게 될 것이며 대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은 이들을 위해 성신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안수례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인봉 의식과 교육을 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필요합니다.

“신전에서 행하여지는 신전 사업을 통해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기쁨으로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전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밤낮으로 그곳에서 봉사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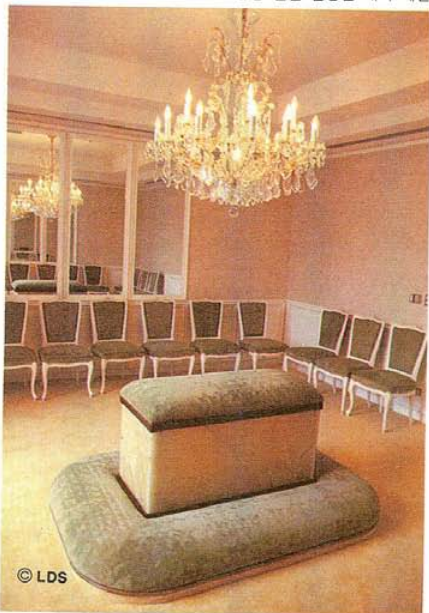
실 것입니다.

한국에서—1975년 8월 15—17일

“한국 민족은 조상을 공경하는 민족입니다. 교회 잡지에서 나는 여러분의 한 형제가 70대까지의 선조를 찾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칭찬하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왜 조상에 관한 자료를 모아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죽은 자를 위해 산 자가 행하여야 하는 신전 사업을 베풀 기회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와 준비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떠나 오랜 세월 동안 무덤 속에 계시는 수많은 조상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영의 세계에서 그들의 후손인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신전에서 그들을 위한 사업을 행해 줄 것을 고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

동경 신전 인봉실 내의 제단



© LDS

주님의 집을 건립함

캐럴 모지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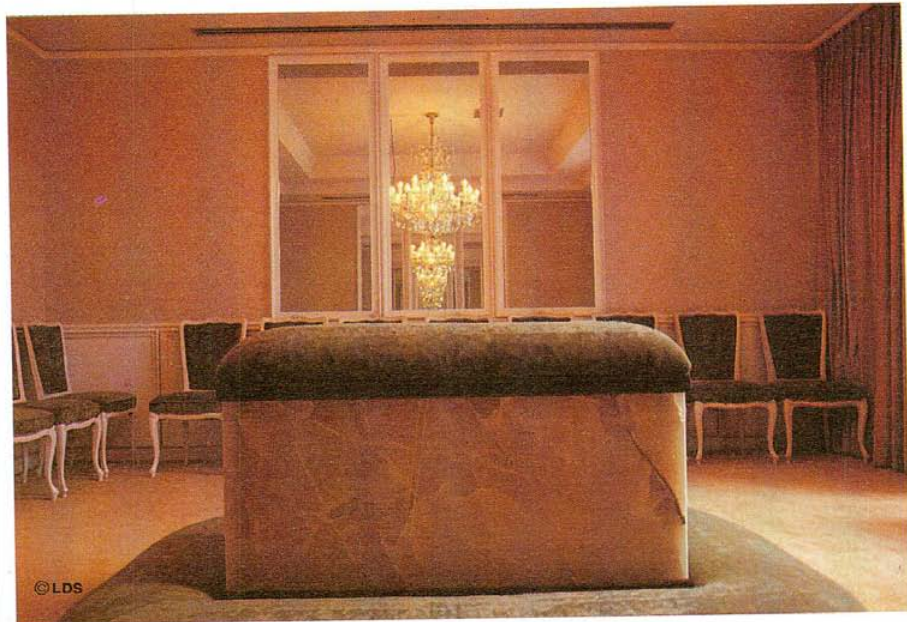
동경 신전은 모든 아시아인을 위한 신전이다. 1980년 10월 27일에 주님의 집으로 헌납될 이 아름다운 새로운 건물의 완공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매튜 카울리 장로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다.

카울리 장로가 신전에 관해서 처음으로 예언한 말씀은 북극동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일한 해리스 테드 프라이스 장로가 1949년에 그의 일지에 기록해 두었다. 그 말씀은 바로 현재 동경 신전이 완성되어 서 있는 일본의 동경시 미나토구 아사부 미나미 5-8-10번지에서 행하여졌던 것으로, 그곳은 당시 북극동 선교부가 들어섰다가 후에 동

경 선교부 사무실이 되었던 곳이다. 프라이스 장로는 1949년 7월 17일에 선교본부 도서관과 복도에서 특별한 헌납식이 열렸다고 기록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선교 본부를 위한 헌납식에서 에드워드 엘 클리솔드 선교부장은 이곳 일본에 선교부를 세우게 된 소감을 말했다. 뒤이어 카울리 장로가 헌납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들은 기도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이었다. 그는 기도 가운데, 앞으로 이곳에 주님의 한없는 축복이 내려질 것이며, '언젠가는 많은 교회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이 땅에 신전이 세워

동경 신전 인봉실



©LDS

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나는 이 모임에서 맨 앞에 앉아 있었으며 나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 뒤에 인용한 말씀은 분명히 위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믿으며, 이 예언의 기도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으므로, 곧 내 방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펴들고 그 말씀을 적었다. 그날 카울리 장로는 특히 일본에 신전 건립에 대해 예언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하여 다른 몇몇 장로와 나를 놀라게 했으며,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덧붙여 말씀했다. 우리가 카울리 장로와 함께 모임을 가진 경험을 통해서, 나는 예언의 영이 그에게 임했음을 알았으며, 그분은 자신이 한 놀라운 말씀에 청중들과 마찬가지로 놀랐다.”(해리슨 티 프라이어, 선교사 일지 제 3집, 149 페이지, 1949년 7월 17일, 1958년 북극동 선교부의 폴 앤드러스 선교부장에게 보내는

서한에 게재)

카울리 장로는 1953년 4월 5일에 솔트레이크 태버내클에서 열린 데저렛 주일학교 연합 반연차 대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다.

“신전과 관련해서, 우리는 온 지상에 시온의 경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일본에 신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들은 신전 의식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어느 사당에서는, 그들은 조그만 나무판에 조상의 성명을 쓰고 그것을 불속에 집어 넣기도 합니다. 나는 이 백성들이 스스로 불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조상을 위해 침례를 받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매튜 카울리 말씀,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54년])

1975년 8월에 열렸던 아시아 지역 대회에서, 킴블 대관장은 카울리 장로의 말씀에 덧붙여 이같이 말씀했다. “우리는 그 땅에 신전을 세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해

동경 신전 내 신전복 배부 카운터



© LDS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아시아인을 위해서 일본 동경에 신전을 세우게 됨을 이곳에 모인 여러분께 발표하는 바입니다.” (일본 지역 대회, 1975년 8월 9일, 3페이지)

신전 관할 구역에 속한 각 지역, 즉 일본, 한국, 홍콩, 대만, 필리핀 성도들은 이 신전 건립 계획을 기쁜 마음으로 지지했다. 당시 아시아에는 약 60,000여 명의 말일성도가 있었지만, 1975년 이후 5년 동안에 그 수는 거의 배로 증가했다. 완성된 신전은 일본의 47,000명, 필리핀의 35,000명, 대만의 18,500명, 한국의 18,700명, 홍콩의 6,500명 등 총 125,700여 명의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게 될 것이다.

참 의미는 알지 못했지만, 아시아인들은 전통적으로 조상을 공경함으로써 수세기 전부터 그들의 땅에 신전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해 왔다.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이 이러한 공경의 참 의미를 대체로 이해하지 못했다 해도, 이 관습은 신성한 기원에서 나온 것

이다. (출 20:12 참조)

그들이 말일의 계시와 신전의 목적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는가! 특히 교회 회원들은 공경심을 갖고 동경 신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고든 비 힝클리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조상에 대한 공경심은 저 세상으로 떠난 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함으로써 가장 아름답게 표현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제 지상의 침례 의식이 베풀어져, 영원한 영향을 미치며, 신권이 부여되고, 가르침과 약속과 성약과 더불어 성스런 엔다우먼트가 행하여지고, 가족을 영원히 함께 묶는 인봉 의식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일본 지역 대회)

동경 신전에서 의식을 위한 사업이 시작되는 1980년 11월 4일 이전까지는, 이 지역의 성도들이 성스런 신전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7,000여 마일이 넘는 솔트레이크

동경 신전 신부 대기실



© LDS

까지, 그보다는 가까운 로스앤젤리스나 하와이까지 여행해야 했다. 아시아에서 125,7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의 수백만의 조상들을 위한 사업을 행하기 위해 그들은 신전을 자주 방문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말일성도들은 그들의 가족이 죽음과 시간을 초월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성약을 통해 성신권의 권능으로 영원히 인봉되기 위하여 큰 희생을 감수하며 하와이와 솔트레이크시티까지 여행하는 충실성을 보여 주었다. 그러한 헌신은 주님의 예언자이신 킵 대관장이 아시아의 충실한 성도들을 위해 신전을 짓는다는 발표를 통해 보상을 받았다.

신전은 주님의 집이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길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원하시므로, 신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는 우리가 신전에서 더욱 충만하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려 주시기에 합당치 않은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엔다우먼트와 여러 가지 성스러운 신전 의식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된다.

주님의 집에서와 같이, 신전은 모든 건물 중에서도 독특한 것이다. 신전은 우선 주께서 몸소 인정하시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신전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그 안에서 행해지는 구원 의식을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주님의 지시와 승인이 없이는 그것은 세상에 세워질 수 없다. 신전이 주님의 지시대로 건축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졌다 해도, 주님의 집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동경 신전은 주님의 종인 대관장단을 통하여 주께서 지시하신 설계에 따라 아름답고 세밀하게 지어졌다. 주님의 종들은 건축의 모든 면에서 세심하게 지시에 따랐다. 신전 부지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선정되었고, 건축가인 에밀 비 케처 형제와 그의 부원들

동경 신전 내의 다섯 개의 곱흔 인봉실 중 하나



© LDS

이 신전의 규모와 설계 및 기능을 결정하는 일을 지도했으며, 건축을 진행하면서 그 단계를 일일이 감독하였다.

건축가와 시공자들이 주님의 집을 지을 때는 대관장단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이 인도받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몸소 성령을 통해 영감을 주시어 도와 주신다. 케치 형제는 “주님의 영은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시종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감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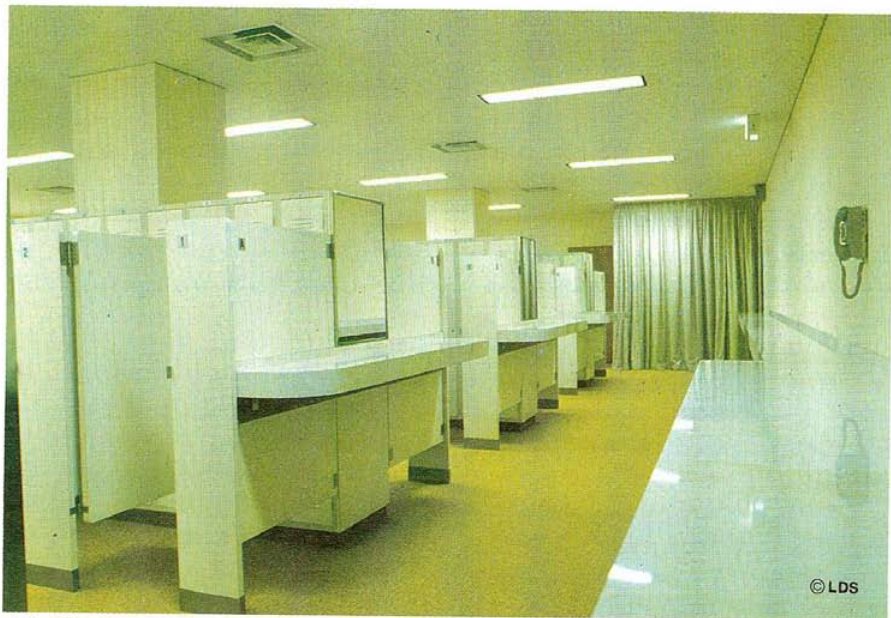
신전 부지 선정은 기도드리며 숙고한 연후에 이루어졌는데, 이곳은 동경 심장부에 위치한 값이 비싼 금싸라기 같은 땅인데 넓이는 600평에 달한다. 그 지역은 30여 년 전에 북교동 선교부 사무실로 쓰기 위해 교회에서 매입한 곳이다. 이곳이 극동 전지역을 위한 선교 본부였다. 이곳은 동경시에서도 가장 경관이 훌륭하고 조용한 미나도구에 위치해 있다. 신전은 일본 왕자의 이름을 딴 아름다운 아리쓰가와 노미야 기념 공

원의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신전의 가장 훌륭한 전망은 공원의 우거진 숲, 연못, 교각, 풍치있는 산책로 등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지역의 이점은 동경의 대중 교통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전을 찾아오는 분들은 비행기나 기차 또는 선박으로 동경에 도착하면, 도착 지점에서 동경 중앙 지하철을 통해 히로역까지 연결 되는데, 히로역은 신전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

킴볼 대관장의 발표와 더불어, 신전 건축 준비가 시작되었다. 예비 설계가 완성된 뒤에도, 초기의 2년 반 동안은 동경의 건축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히 연구하고 검토했다. 신전은 동경에서 빈발하는 강한 지진과 태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신전이 들어서게 되어 인근 주민에게 미치게 될 일조권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했다. 2년 2개월에 걸쳐 연인원 30,000명이 동원되어, 완성된 신전은 동경에서 가장 안

동경 신전 결혼 인봉실 내의 거울에 계속 비치는 실내





동경 신전 의식 참여자 탑의실 및 대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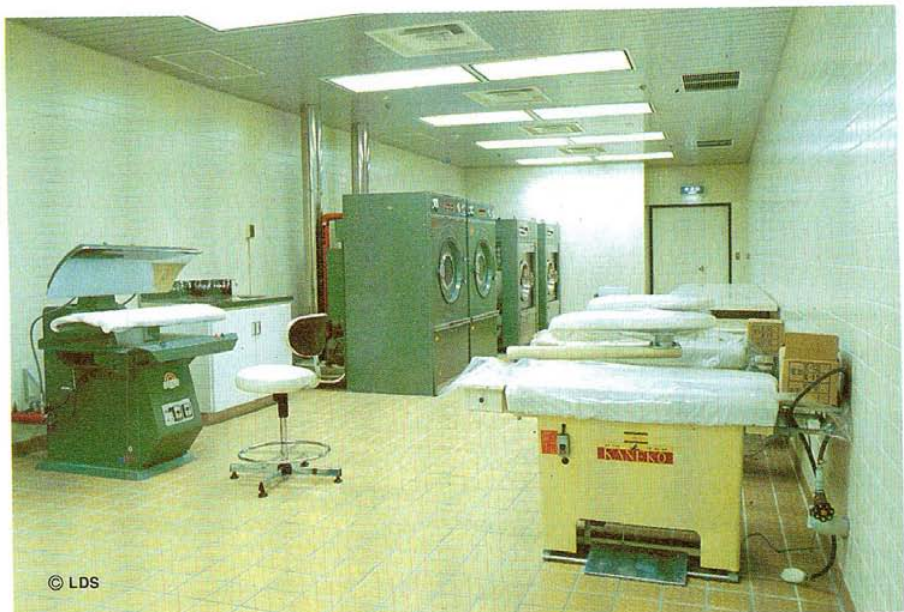
전하고, 훌륭하게 건축된 건물의 하나이다. 벽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되어 있고, 전면 에 백색 돌이 부착되었다. 건물 자체는 단단한 기반 속에 깊이 박은 철근 콘크리트 기둥으로 받쳐져 있다.

신전은 교회의 건축가인 에밀 비 켈처 형제의 지시로 지어졌다. 그는 일본과 미국 을 왕래하며 건축과 기술적인 면을 조정했다. 그는 신전 및 특별 사업부의 책임자인 월레스 지 맥파이 형제와 신전 건축 담당 상 주 기술자인 사도 나카다 형제의 도움을 받았다. 그들은 유능한 일본의 기술 및 건설 회사인 가지마 건설 회사와 함께 일했는데, 그 회사는 일본에서 가장 훌륭한 기술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들이 가장 어려운 공사로 생각했던 것은 중앙의 뾰족탑의 건축 공법이었다. 건축의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강한 지진을 견디어 내고 태풍의 풍력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도록 설계되어야 했다. 탑은 먼저 부분적으로 만들

어진 후 조립되어 55미터 높이로 세워졌다.

중앙에 뾰족탑을 건축하는 때에는 역시 다른 문제점도 야기되었다. 그 탑은 큰 산업도시에서 볼 수 있는 공기 오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매우 적합한 재료인 범랑으로 만들기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그에 필요한 범랑은 일본에서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대신 쓸 수 있는 재료를 여러 가지로 탐색해 본 결과 공기 오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유일한 금속으로서 광택 처리를 한 스테인레스 스틸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뾰족탑이 설치되기까지는,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켈처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문제점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첨탑을 제작한 금속 제조사의 기술자들은 내가 이제까지 보아 온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스테인레스 스틸 외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을 추가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설명을 계속했다.



© LDS

동경 신전 세탁실

“그것은 표면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광택 처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침탐을 제자리에 모은 후에 그것이 이른 아침 햇빛과 같은 빛을 띄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분홍빛이었습니다. 낮이 되면 그것은 하늘과 구름의 색을 나타내고, 저녁이 되어 해가 기울 때는 탐은 아름답고 부드러운 일물의 색조로 비칩니다. 탐이 하루 온종일 부드러운 분홍빛에서 푸른빛으로, 다시 흰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무한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모든 기술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나카또 형제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지만, 모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고, 호감을 주며 합심하며, 헌신적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여러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신전만큼 잘 지었습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신전은 어느 신전보다도 가장 훌륭합니다. 그

들은 아주 작은 부분도 아주 양심적으로 일했으며, 그 기술은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기술자들 중에는 왕궁을 지은 사람도 있으며, 그들은 이 건물에 대해서도 그만한 자부심과 헌신으로 이 일에 임했습니다. 청부인이나 기술자들은 흔히 신전을 그들의 것처럼 말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건축에 직접 개입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집에서 일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듯했으며, 진지하게 작업에 임했다. 일례를 들면, “그들이 지진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신전의 기틀을 이루는 거대한 철강 비임을 조립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기술자들은 함께 모여 그물을 이루고 그들이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일을 하여 비임을 제자리에 맞추는 동안 아무도 다치지 않게 기도드렸습니다. 건축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부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경 신전의 설계는 아시아의 종교 건물 중에서 특이한 것이다. 그것은 아시아인들

의 특징인 우아함과 아름다움과 단조로운 선을 제외하고는 동양의 탑과 유사한 점이 없다. 그러나, 중앙 침탑의 곡선은 그 배경과 어울리는 동양적인 특성을 풍겨 주고 있다.

여러 층으로 된 이 신전의 설계는 전체가 일층으로 세워져 최근에 헌납된 상파울루 신전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동경 신전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다. 건물의 주요 부분은 지상 20미터의 높이로 서 있고, 56미터의 높이에 달하는 채색 유리창으로 강조된 좁은 탑으로 되어 있다. 건물 바닥의 면적은 폭이 23미터에 길이 40미터이며 위층의 높이는 23미터에서 27미터에 달한다. 설계와 규모는 독특하지만, 동경 신전은 다른 신전과 같은 기능을 지니고 있다.

지하층의 주요 형태는 칩체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 성전의 칩체반을 고증하여, 열 두 마리의 인조 대리석 황소의 등에 칩체반이 얹혀 있는 전통적인 설계로 되어 있다.

의식 참여자는 일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일층에는 휴게실, 신전장단과 직원 사무실, 청소년 센터, 유아실, 식당 및 주방, 신전복실과 세탁실이 있다. 2층에는 탈의실이 남녀별로 나뉘어져 있고, 신부 대기실, 신부와 신랑을 위한 강의실이 있다.

3층에 있는 각 방의 실내 장식은 교회의 모든 신전에서와 같이 공통적이며 조용하고 우아한 것이 특색이다. 그곳에는 120석의 좌석이 있는 조용한 예배당과 다섯 개의 인봉실이 있다.

4층에는 두 개의 의식실과 해의 왕국실이 있다. 의식실에는 자기 100개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방에 있는 계단, 좌석 및 휘장 등은 다른 신전에서 보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한편, 해의 왕국실의 장식은 이 신전에서 독특한 면을 볼 수 있다. 산테 리야만이 최근에 지은 다른 신전의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방 자체는 바

깎 침탑과 같은 동양적 장식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가장 훌륭하면서도 고전적인 목공예로 장식되어 있다.

신전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도 신전이 설계될 때 충분히 고려되었다. 계단과 엘리베이터도 편리하게 배치되어 있어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쉽게 다닐 수 있게 했다. 휠체어를 탄 불구자를 위한 특수 시설물이 엘리베이터와 특수 탈의실에 구비되어, 그들이 신전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했다.

신전 시설물 외에도, 신전 일층의 뒷쪽에는 상호부조회 가먼트 배부실이 마련되어 있다. 그 위층에는 신전장과 그 부인이 기거하는 아파트가 있다. 그 부속 건물에는 거실, 식당, 주방과 두 개의 침실과 목욕실이 있다.

신전 주변의 경관은 선교부 사무실이 서 있을 때부터 원래 꾸며져 있던 일본식 정원을 재생시킨 것이다. 그곳에 있던 수림, 일본식 석등 및 아름다운 형태의 돌 등은 그대로 보존되어 신전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주고 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신전의 담이다. “전에 있던 선교 본부 건물은 두터운 돌벽으로 둘러싸여, 일본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거리에서 선교 본부 건물이나 정원 안을 들여다 볼 수 없게 되어 있었읍니다.”라고 폐치 형제는 설명한다. “우리가 정원과 신전 주위의 담을 설계할 때, 우리는 두터운 돌담을 헐고 장식적인 철책을 둘러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신전과 정원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했읍니다. 이와 같이 해도, 주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신전 건물에 썩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최근에 구입한 인접한 반에 이커에 달하는 대지에는, 부속 건물이 건축되었다. 이 건물에서는 1년 내지 18개월 동안 신전 선교사로 부름받게 될 부부들이 기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건물 뒤에는 신

전장단과 그 직원들을 위해서 16개의 주자장이 들어서게 된다.

새로운 신전장은 북극동 선교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드웨인 엔 앤더슨 신전장이다. 그가 부름을 받을 당시,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의 교수와 직업 교육 상담자로 있었으며, 비 와이 유 제일 스테이크의 축복사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는 하와이 신전의 책임자로도 일해 왔다.

신전 매트론으로 일하는 앤더슨 자매는 초등학교, 청년회, 주일학교 및 상호부조회의役員 및 교사직을 맡아 왔으며, 하와이 신전에서 안내자로 일하기도 했다.

유구스 이노우에 형제는 신전장단의 제 1보좌로, 야수히로 마쭈히다 형제는 제 2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건축이 완성되어 신전 의식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고대해 왔다. 이 역사적인 날이 다가오게 되어, 이제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결혼 의식이 신권 소유자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다. 침수로써의 침례가 산 자를 위해 집행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미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서도 대리로 베풀어질 수 있다. 또한 엔다우먼트 의식에서, 인간의 출생 이전과 지상 생활과 사망 이후의 인간의 영원한 과정에 대한 가르침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와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죽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리로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교회의 신전 건물이다. 동경 신전이 헌납된 지 3주일 후인, 1980년 11월 17일에는 시애틀에서 워싱턴 신전이 헌납될 예정이다. 1975년 이후에, 아홉 개의 신전 건축 계획이 추가로 발표되었다.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솔트레이크시티의 조든 리버 신전, 조지아 애틀랜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칠레의 산티아고, 타히티의 파페테, 통가의 누쿠아로파, 서 사모아의 아피아 등이다.

킴벌 대관장은 세계의 각 지역에서 이 큰 축복을 받기 위해 스스로 준비한다면, 다른 새로운 신전 건립 계획도 발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전을 쉽게 방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회 지도자와 회원들은 정구적으로 신전에 참석하고 그들의 계보 탐구를 위해 준비하는 책임이 더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준비하게 되면 대관장단이 지적한 대로 더욱 큰 축복을 받게 된다. “새로운 신전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충실한 말일성도들에게 신전 의식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성도들이 신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표준으로 그들의 결혼 생활, 가정 생활, 개인 생활이 강화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조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고, 자녀들은 행복하며, 모든 사람이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동경 신전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말일성도들은 신전을 방문하기 위해 준비할 때 그들의 생활의 변화를 확실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

동경 신전 인공실의 채색 유리창



동경 신전

후지야 나라

동경 북 스테이크 축복사

1901년 8월, 히버 제이 그랜트 장로와 3명의 장로가 우리 나라에 상륙함으로써 선교 사업의 첫장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있는 후 몇 년이 지난 12세가 되던 해에 삿포르에서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이 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뒤에 우리 가족은 동경으로 이사하였으며, 나는 17세에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1923년 일본에서는 맨 처음으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로 성임되었습니다. 1년 후 군국주의가 팽배해져서 일본 선교부는 문을 닫았고, 세계 제 2차 대전이 종식을 고할 때까지 다시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1925년에 결혼하였으나 1965년 하와이 신전을 방문할 때까지는 인봉의 축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많은 일본 성도들은 재정적으로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와이 신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간증을 강화시켰습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1965년부터 연례적으로 신전을 방문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축복받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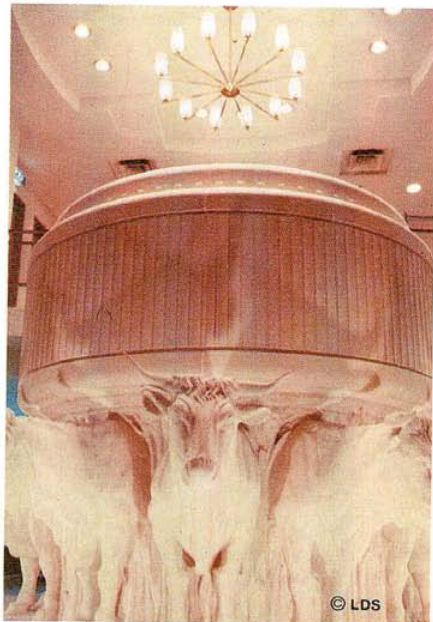
여러분은 일본에서 처음 열린 지역 대회에서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이 다음과 같이 발표하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흥분하고 기뻐하였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에게 매우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전 지역을 위하여 일본 동경에 신전을 건립할 것을 제의합니다.”(일본 지역 대회 공식 보고, 1975년 8월 9일, 4페이지)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안식일날 교회 집회에서는 행해지지 않던 박수갈채가 일만 명의 성도들 가운데서 우뢰같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예언자에 대한 성도들의 감사의 표시였으며, 그들은 신전을 갖게 된다는 이 위대한 축복을 인식하고 모두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시아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또한 81세가 된 저 역시 여기서 일역을 담당하게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

동경 신전 침례반



© LDS

왜 신전을 지을까요?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조 용히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본 사람이라면 인생의 성스러운 신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문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나는 어디로 갈까? 나를 만드신

분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죽음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잃게 할까? 나의 아내와 자녀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을 떠나면 또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까? 그렇다면 그곳에서도 서로를 알아보게 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의 지혜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타주 솔트레이크 신전 해의 왕국실



밝혀 주신 말씀 안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전은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각 신전은 주님의 집이요 거룩하고 평화로운 장소로 헌납되었으며, 세상적인 모든 것과는 멀리 떨어져 영원한 것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진리가 가르쳐지고 의식이 집행되며, 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성스러운 유산과 영원한 존재로서 그가 지니는 잠재력을 알아 생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정규 교회 집회 장소와 다른 건물들은 그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다른 종파의 집회소와는 상이합니다. 그렇게 다른 까닭은 건물이 유달리 크나든지 건축학상 미적인 것을 살렸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선전 안에서 행해지는 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정규 예배 장소와는 구분해서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장소로 신전을 지정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 있던 관습으로 그들은 정규적으로 회당에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성스러운 장소로 지정소가 있는 광야의 장막을 지정하였으며, 이곳을 당시에는 신전으로 사용하여, 특별한 의식을 행했고 여기에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의식을 받기 위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전을 헌납하기 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신전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시켜 모든 시설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러나 일단 주님의 집으로 헌납되어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지면 합당한 위치에 있는 교회의 회원만이 신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일 때문이 아니라 성스러운 곳이기

유타주 솔트레이크 신전 나선형 계단



유타주 맨타이 신전 곱은 인봉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건물에서는 인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자녀와 창조에 관한 모습을 보여 줍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과 지상의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인 가족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결혼 성약과 가족 관계의 성스럽고 영원한 성격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남녀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의 거룩한 축성을 부여 받고 있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가르침이 되풀이 될 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유익한 효력이 미치게 되는 데, 이는 교리가 아름답고 인상적인 어조로 되풀이 설명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다 거룩한 가정의 구성원이고 모두가 그의 형제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라고 물었을 때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가복음 12:28, 30-31)

오늘날 신전에서 배울 수 있는 가르침도 인간이 그의 창조주와 그의 형제에 대해서 갖는 의무의 기본되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의식은 하나님 가족의 고상한 원리를 잘 설명해 줍니다. 또한 우리의 몸고 있는 영은 육신이 유한한 데 비해 영원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신전은 또한 이와 같은 위대한 진리를 이해시켜 줄 뿐 아니라 참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며 하나님의 다른 많은 자녀에게

아이다호주 아이다호홀스 신전 정원실



보다 큰 우애를 나타내 보이게 해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지상 생활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집에서는 계시로 밝혀진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지상 생활은 영원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오기 전에 영의 자녀로서 살았습니다. 경전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렘 1:5)

우리는 지상의 부모를 통해 그의 자녀로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그의 협조자가 되어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란 현세와 영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조직입니다.

신전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사업이 가족에 관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신전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 것 같이 우리는 죽은 후에도 계속 살게 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맞출 수 있는 가장 값지고 만족스러운 관계나 가정에서 찾을 수 있는 아름답고 뜻깊은 가족의 유대는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지속될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와서 축복에 참여하는 결혼 당사자들은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깊은 유대를 지속하게 됩니다. 국법이 그들의 결합을 죽을 때까지 지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신권이 그들을 천국에서도 굳게 맺어 줍니다. 이렇게 결혼한 부부는 합당한 생활을 할 때 그들의 관계나 자녀들과 갖는 유대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확신하게 됩니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 남편이나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 아내로서 그들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

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생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족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삶의 값진 것과 사랑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족 관계는 죽은 후에도 지속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전당에서 행해지는 성스러운 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을 통해 얻는 축복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에게만 국한된다면 참으로 이기적인 일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신전에 들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는 전세계에 광범한 복음 사업을 펴고 있으며 가능한 한 폭넓게 이 프로그램을 계속 펴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성스러운 계시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들어 볼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신전에서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도 똑같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들은 지상에서 그들을 위해 집행하는 침례, 결혼, 가족 관계를 결बंध 주는 인봉 의식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에는 강제가 있을 수 없으나 똑같은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대리 사업은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 보이는 큰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확인하고 찾아보는 광범위한 계보 탐구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보 탐구를 돕기 위해서 교회는 계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탐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계보 시설을 갖춘 기록 보관소는 일반에게 공개되며 선조의 기록을 찾으려는 비회원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계의 계보 연구가로부터 큰 찬사를 받아 왔으며, 이 기록 보관소는 각국의 기록을 안전히 보관할 수 있는 곳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적은 교회 회원이 그들의 선조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들이 누리는 기쁨을 선조들에게도 맛볼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내나 자녀를 사랑하여 그들과 영생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나의 조부나 증조부나 혹은 다른 선조들도 이와 같은 영원한 축복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스러운 곳에서는 조용하고 경건한 가운데 수많은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대답이 기록된 계시자 요한의 시현을 회상하게 됩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계 7: 13-15)

이 성스러운 집에 오는 사람들은 의식에 참여할 때 흰 옷을 입게 됩니다. 그들은 합당성을 인정하는 지역 신권 역원의 추천서를 받아 신전에 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과 몸과 복장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것을 제쳐 두고 하나님의 것에 온 마음을 기울이면서 신전에 올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식은 그 자체에 큰 보상을 안겨다 줍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잠시 세상을 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을 조용히 생각하여 보고싶지 않겠습니까? 이 성스러운 장소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값진 기회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거기서 참여자는 참으로 인생의 값진 것을 배우거나 회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전세에서 이 세상을 거쳐 우리가 서로 알고 사귀게 될 미래의 세계를 향한 우리의 영원한 여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영과 육과 정신을 유산으로 남겨 준 선조들과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이 신전은 다른 어느 건물과도 다른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전은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신전은 성약과 약속을 맺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제단 아래 무릎을 꿇고 그의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가지며, 그의 독생자이며 세상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그는 우리 인류를 위해 희생되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스스로를 위해 봉사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봉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관계인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와 부모로서 영원한 가족으로서 죽음으로도 해칠 수 없는 관계로 인봉되고 함께 맺어집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건물은 말일성도들이 무참히 쫓겨 다니고 박해를 받던 암흑 시대에도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신전은 빈곤하던 시대뿐만 아니라 번성한 시대에도 세워져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전은 살아 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예언자와 거룩한 계시와 신전에서만 찾을 수 있는 영원한 축복에 대한 확신과 평안을 믿는 회원들의 강한 신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신전과 영원한 결혼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간의 존재가 종식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인간은 선하진 악하진 모두 부활합니다. 그의 영은 무덤 속의 육신과 재결합을 하게 되며, 그가 그의 삶을 온전하게 영위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였다면 그의 영과 육신은 결합되어 새롭고 깨끗하고 영원한 불멸의 상태로 됩니다.

참된 결혼 생활의 큰 기쁨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영원한 결혼을 통해 성스러운 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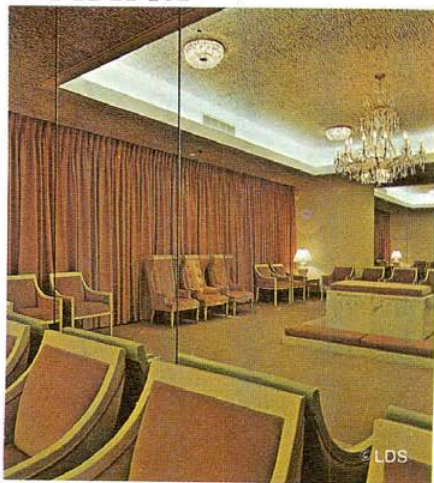
로 인봉된다면 성스러운 가족 관계는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과 발전은 끝이 없게 되나, 이러한 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잘 알려져 있고 매우 분명합니다. 영원한 결혼은 아담과 그 외의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알려졌으나 수세기 전에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회복해 주셨고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복음이 회복되면서 거룩한 신권이 함께 회복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언자에게 아담, 아브라함, 모세 기타 초기의 사도들이 지녔던 모든 열쇠와 권능

유타주 욱든 신전 해의 왕국실



워싱턴 신전 결혼 인봉실



과 권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전에 관한 지식과 이를 세우는 목적도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주님의 특별한 사업을 위해 도처에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신전에서는 합당한 권능을 소유한 사람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영원한 관계를 맺어 주는 인봉 의식을 집행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속주가 말씀하신 신비중의 하나로, 그분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잠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마태복음 13: 35)

경전을 주의깊게 읽지 않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구절의 값진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린도전서 2: 11, 14)

지식이 많고 높은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위대한 특권을 무시하거나 고의로 저버리는 것은 참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문은 열릴 수가 있으며 그러한 간격도 좁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들의 결혼 관계를 영원으로 이끌면서, 끝없는 행복을 향해 안전히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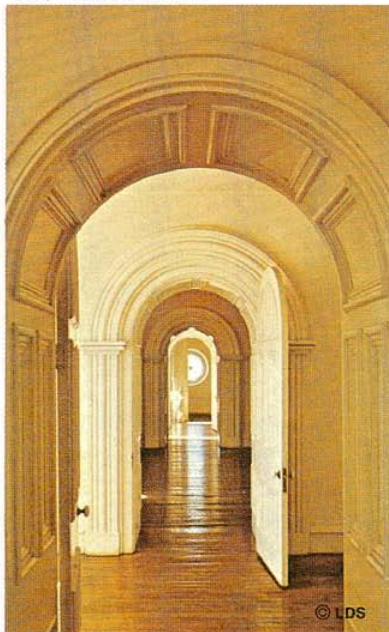
유타주 맨타이 신전 독립 나선형 계단



유타주 로간 신전 천장



유타주 세인트조지 신전현관



구세주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뜻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마태복음 13: 11, 15)

옆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제자들에게 구세주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마태복음 13: 16-17)

주님께서 성실한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왕국의 신비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될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여 구세주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위선에 찬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 하신 대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자 모세의 율법에 따라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였으며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 묘한 질문이 던져졌던 것입니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중에 누구 아내가 되리이까”(막 12: 23) 이에 대한 구세주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고 조금도 핵심에서 빗나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마가복음 12: 24)

우리는 여러분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구세주의 말씀에서 비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는 사두개인들에게 “감은 눈을 뜨고 보라.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의 문을 열고 이해해 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형제 여러분께서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암시적인 뜻과 진리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경전에서서는 이 말씀의 뜻이 다소 장막에 가려진 것처럼 보이거나 우리는 현대의 계시를 통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분명하였다. 즉 그 여인과 첫번째로 결혼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세만을 위하여...결혼하였기 때문에, 부활 때에 이 여자가 일곱 형제 중 영원히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였다. ...결혼 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는 부활 이전에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인봉시키는 권능을 지닌 성신권의 권능으로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549페이지)

틀림없이 첫번째 남편이 현세에만 국한되지 않는 영원한 결혼 의식을 그 여인과 하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난 후 다시 남편을 만날 때까지만 미망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여인은 “죽음으로 끝날” 결혼을 제2의 남편과 하게 된 것이며, 자녀들을 두었을까라도 이들은 헤어져야만 합니다. 그 남편은 아내가 없이 혼자 장막을 통해 영의 세계로 가야 하는데, 이는 그들의 결혼 관계는 죽음으로써 끝나기 때문입니다. 제3, 4, 5, 6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남편도 모두 현세에만 그치는 일시적인 결혼 관계를 그녀와 맺은 것입니다. 죽음은 그들이 간직해 온 행복과 장래에 대한 축복의 소망을 송두리째 앗아 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우울한 일입니까?

나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라는 말로

결혼식을 마친 어느 부부가 한 시간 후에 교통 사고로 세상을 떠난 예를 보았습니다.

일반 결혼은 지상을 사는 동안만의 계약 결혼으로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죽게 될 때 결혼 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영원한 해의 영광의 결혼은 남녀가 맺는 성스러운 성약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열쇠를 지닌 종이 성스러운 신전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죽음을 초월하여 지속되는 것으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19) 우리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우리의 관계가 지속되고 결혼 생활의 기쁨을 누리며 가정 생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리라.”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고전 15:40-42)

바울은 많은 성도들이 이해한 바와 같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였으나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비유에 담긴 중요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의 초소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한 상태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 형태가 다르듯이 이것도 다른데, 이는 인간이 “육신으로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계시를 통해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야흐로 네게 주려 하는 교혼을 받아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라. 이는 이 율법을 계시받은 자는 모두 이에 순종하여야 함이니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새롭고도 영원한 서약을 계시함이라...”(교성 132:3-4)

새롭고도 영원한 서약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참된 권능의 열쇠를 전 합당한 지도자가 성스러운 신전에서 행하는 결혼 의식을 말합니다. 이 영예로운 축복은 지상에 있는 남녀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의식에 내포된 참된 목적을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밝혀 주셨습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서약에 대하여 이르노라. 이는 나의 완전한 영광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완전함을 받는 자는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정죄받으리라.”(교리와 성약 132:6)

바울은 해와 달과 별의 왕국에 관해서 말했는데, 인간은 그들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와 영원한 율법에 따랐는가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해의 왕국도 세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는 이 신권의 반차(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서약을 말함)에 참여해야 하느니라.

“만일 참여하지 못하면 이를 얻을 수 없느니라.

“저가 다른 곳에 들어갈 수 있으려니와 이는 저의 왕국의 마지막이니 저는 증진할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31:2-4)

주님께서서는 계속해서 영원한 결혼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체의 서약, 계약, 약속, 의무, 맹세, 이행, 관계, 교제 또는 예약이니, ... 약속의 성령으로써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토록 맺어지고 계약되고 결별되지 ... 아니하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한 후에 아무런 효험이나 효력이나 능력이 없으리라... 이상의 목적으로 맺어지지 아니한 일체의

계약은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을 맺느니라.”
(교리와 성약 132 : 7)

그렇다면 “이 세상이 다할 때까지”라든가 “죽음이 갈라 놓을 때까지”라는 결혼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시나, 자비가 공의를 도둑질할 수는 없습니다. (앨 42 : 25 참조) 주님의 자비는 그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을 때 우리에게 그 효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공의는 그가 우리를 심판하실 때나 우리가 합당히 노력하여 축복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무도 이 서약을 깨뜨리고서는 나의 영광에 들어올을 허락받을 수 없음이라 “이는 나의 축복을 받을 자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하여 정하여진 율법과 조건을 창세 이전부터 제정된 그대로 반드시 지켜야만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132 : 4-5)

일반 결혼은 국법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집행할 수 있으나 영원한 결혼은 특별한 권능을 소유한 사람만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는 천물을 내가 어찌 받으리오?”

“또 내가 배정해 주지 아니한 것을 너희 손에서 어찌 받으리오?”(교리와 성약 132 : 9-10)

구속주께서는 또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느 남자가 이 세상에서 아내를 맞아들일 때 나나 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장가들어 그 남자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자기 아내와 서약하고 아내 또한 남자와 서약하면 저희 서약과 결혼은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효력이 없어지나니,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떠한 율법으로도 저희는 결합된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132 : 15)

“나는 주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에

게 이 계명을 주노니, 곧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거나 나의 율법이 되는 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 아버지께 올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교리와 성약 132 : 12)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부연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비록 사람으로나 왕으로나 주권으로나 또는 명의상으로나 그 어떠한 것으로 정하여졌을지라도나, 곧 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은 다 무너져 버릴 것이요, 사람이 죽은 뒤에 부활할 때나 그 뒤에도 남아 있지 아니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교성 132 : 13)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사망으로 우리의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고 계속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나, 알면서 그의 말씀을 거부할 때, 행복하고 즐거웠던 결혼 생활과 가족의 유대가 죽음과 함께 종식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깨달을 때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은 그들의 행위대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흔히 알려진 말씀대로 저주를 받게 되지는 않으나 주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계약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며 최고의 왕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율법을 순종하고 계명대로 생활한 사람을 시중드는 종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합당하게 살았으나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지 못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천사는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 그러므로 저희는 증식할 수 없고 다만 따로 떨어져 홀로 있어 승영에 이를 수 없으며 구원받은 상태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나니, 이 때로부터 신이 아니요, 다만 영구히 하나님의 천사가 되느니라.”(교리와 성약 132 : 17)

이 얼마나 처량하고 부자유스러운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 생활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준비하는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엡 34 : 32 참조) 영원히 독신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외롭고 황량하겠습니까! 합당한 요건을 갖추고, 권능을 지닌 자로부터 영원한 신전 결혼을 집행받아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신의 경지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멀어져서 무한한 세월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영광을 얻을 수 없느니라.

“무릇 승영과 생명의 계속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험착하여 이를 찾는 이가

적나니, 이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나를 알지도 아니함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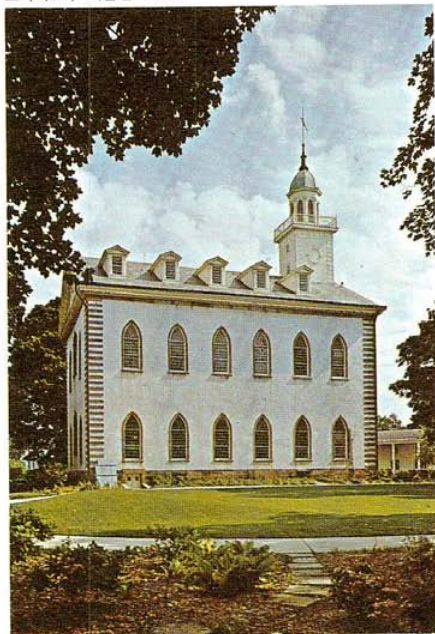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알게 될 것이요, 너희의 승영을 받으리니,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리라.

“지혜로우시며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며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 바로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율법을 받아 들일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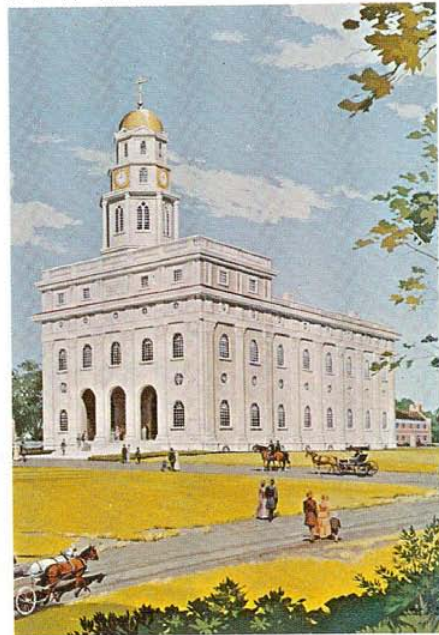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 가는 자가 많으니 저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연고니라.” (요리와 성약 132 : 21-25)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를 믿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신전



일리노이주 나부 신전



고 그의 계명을 실천하게 되며 그가 요구하시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영생과 크고 끝이 없는 행복과 하나님을 만나 그의 면전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저버리시겠습니까? 탐구하는 마음과 연구와 명상의 자세를 갖지 않고, 편견과 오해와 지식의 부족으로 이처럼 큰 축복과 특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영원토록 남을 위해서 봉사만 하는 독신자로서 생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식이 죽은 후에 고아가 되어 방황하게 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상에서 맞본 큰 기쁨을 영원토록 더하며”(아브라함서 3:26 참조) 영원히 지속시키고 증대시킬 수 있는데도 혼자 외로운 영생의 길을 걸어가지겠습니까? 사두개인처럼 이 위대한 진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시겠습니까? 나는 참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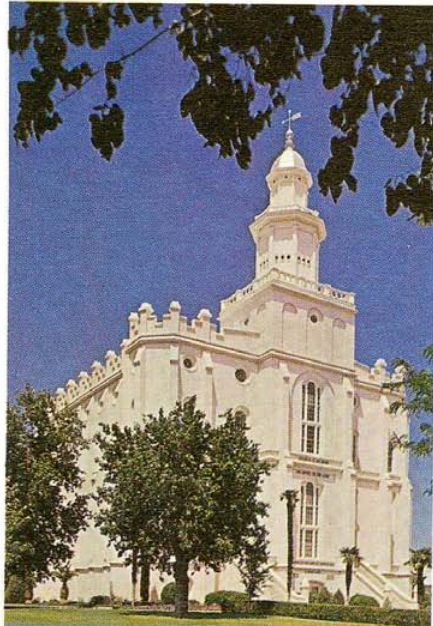
이 잠시 멈추어서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영원한 것이 되도록 합당한 방도를 취할 것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간절한 권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십시오. 귀를 열고 들어 주십시오.

영원한 결혼 의식을 갖고 끊임없이 합당한 생활을 할 때 무한한 행복과 승영을 누리게 됩니다. 만군의 주께서 하신 말씀을 끝으로 인용해 드리며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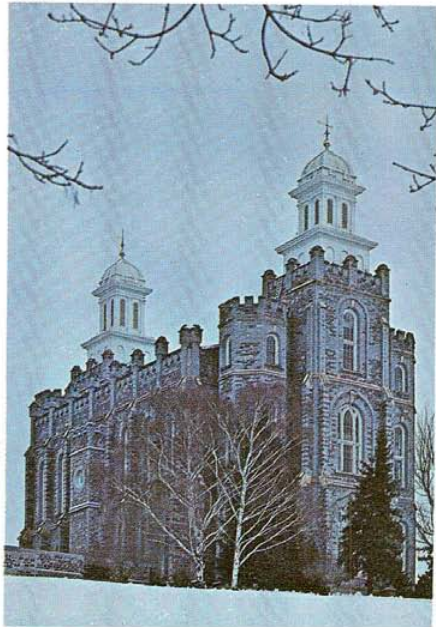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요한계시록 3:18)

*

유티주 세인트조지 신전



유티주 로간 신전



신전을 짓는 이유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여러분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세운 신전을 방문하거나, 그 사진을 보면서 왜 그러한 건물을 짓는지 그 까닭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왜 말일성도는 신전을 지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그것은 예배 모임이나 의식적인 목적을 위한 것일까요? 그 안에서는 어떠한 일을 행할까요? 왜 말일성도는 이러한 일을 하는 데 그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고 있을까요?

말일성도는 서부로 이주해 오는 도중에도 신전 건축 사업을 계속했으며, 그들이 목적지에 도달한지 채 몇 년도 되지 않아 유타주에 네 개의 신전을 완공했습니다. 그후로 그들

은 온 세상에 많은 다른 신전을 세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고대 이스라엘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 신성한 건물에서 거룩한 의식이 수행되었습니다. 신전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지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는 이동식 장막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막은 “주님의 전”이라 불리웠으며, 예를 들자면, 사무엘의 어머니가 기도하러 갔던 곳도 그런 곳이었습다. (사무엘상 1:9) 그들이 방랑 생활을 끝내고 안정된 정부를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영화로운 신전을 지었습니다.

성서 시대의 형태에 따라 또다시 주님은 우리 시대에도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

유타주 맨타이 신전



유타주 솔트레이크 신전



한 성스런 의식을 마련하셨으며 그러한 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신전을 짓도록 지시하십니다.

고대에는 주님의 구원의 축복을 얻으려면 개개인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1) 주님의 계명에 따라 의로운 생활을 하며,

(2) 주님의 참 권능을 받은 종이 집행하는 구원의 의식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의식 중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수행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주 성스런 의식을 처음에는 장막이나 진이 되었다가 후에는 성전으로 대체된 특별히 지어진 건물에서 행하도록 주님은 명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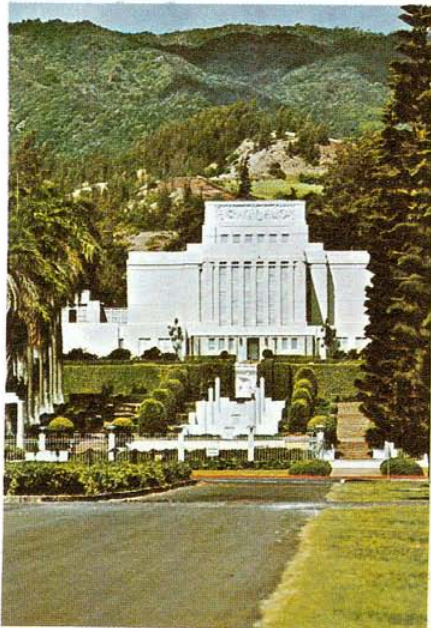
그곳에서 신권 소유자가 성스런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들어갈 수는

없었고 합당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들어갔습니다. 합당치 않은 집행자들은 하나님의 노하심을 샀습니다. 거룩한 의식은 세상에 공개된 일이 없습니다. 이는 그 의식이 너무도 거룩했던 때문이며 오직 택함을 받은 성실한 자만이 장엄한 의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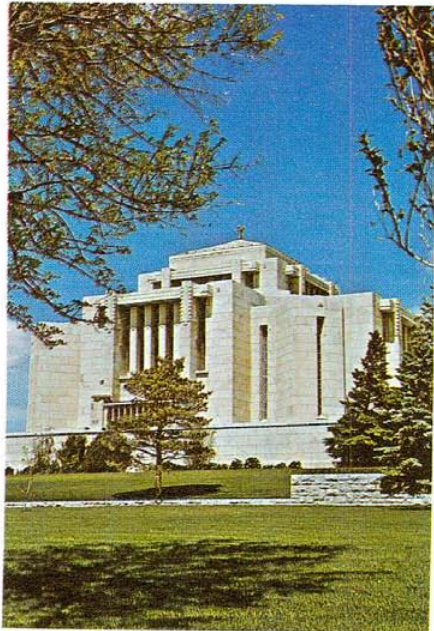
말일에 복음이 회복되자, 신전 건물과 신전 의식 역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되었습니다. 말일성도는 예언자로부터 “해의 왕국의 율법과 모든 율법에 순종” 함으로써만 영원한 세계에서 해의 왕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1844년 4월 8일에 예언자 요셉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그가 그들에게 베푸는 신전 의식은 아주 중요한 것이며, “그 의식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해의 왕국에 들

하와이 신전



캐나다 앨버타 신전



어갈 수 없으며, 그 목적을 위해 준비된 거룩한 곳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정사, 6:318-20)

그러므로, 신전이 없으면, 축복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신전을 지어야 한다는 해답이 주어졌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를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힘을 합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것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세워졌으며, 1836년에 헌납되었습니다. 그 신전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나, 교회에서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커틀랜드에 있는 신전은 다만 예비적인 것이었으며, 그곳에서 많은 성스러운 의식이 계시되었습니다. 그 신전이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신전 사업의 주요 부분은 다른 신전에서 행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그 신전

은 후에 지어진 신전의 양식대로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건물에는 침례탕도 없었고, 결혼이나 기타 중요한 의식을 위한 방도 없었습니다. 그 신전은 대체로 예배 장소와 같은 형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박해를 받고 성도들은 커틀랜드에서 쫓겨났으며, 그들은 신전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미주리주 잭슨 카운티에 취락을 정하고, 그곳에서 신전 부지를 헌납했으나, 박해로 인해 신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디펜던스에서 멀지 않은 미주리주 파웨스트에 주거지를 정하고, 세번째 신전 부지에 모퉁이 돌을 놓았으나, 박해로 다시 좌절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지시하에 일리노이주 나부로 읍진 그들은 네번째 신전의 모퉁이 돌을 놓았으며, 이번에는 예언자와 그의 형인 하이람 축복사를 순교시킨

아리조나주 아리조나 신전



아이다호주 아이다호폴스 신전



적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아가면서도 신전을 완성시켰습니다.

말일성도는 평원을 가로질러 슈타르타로 들어 오면서, 조금도 꺾이지 않은 열정으로 신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 구원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신전 의식이 구원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했으므로 그것을 가져다 주는 집을 짓는 데는 조금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전이 어떻게 하여 인간의 구원에 그처럼 필수적인 것일까요? 고대에도 그러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고대 이스라엘인의 종교 생활에 어떤 몫을 담당했습니까?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공회당 이상의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것은 신권 소유자만이 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였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

입니다. 그리하여 “지성소”는 가장 충실한 자들을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보통 공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의식과는 관련이 없는 성스런 의식이 그곳에서 수행되었습니다. 그 성전은 호기심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존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 그곳을 시장터로 만들어 더럽혀졌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구세주는 크게 분노하시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 내시었습니다.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느도다”(마 21:13)

말일에 지어진 신전도 마찬가지로 성스러운 것이므로, 역시 교회의 가장 충실한 회

스위스 신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리스 신전



원들만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할까요? 대중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이므로 호기심을 끌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신전이 지어지면, 그것은 일반 관람자들에게 공개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을 둘러 보고 그 아름다움을 경탄하게 됩니다. 신전이 헌납되면 일반적인 신전 사업 활동이 시작되며, 여행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활동을 중단시키는 일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신전이 헌납되기 전에 방문자들은 이방 저방을 돌아보며,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항상 관심의 초점이 되는 곳은 침례당입니다. 어느 신전 안에서든지, 이 침례당은 돌이나 놋쇠로 빛은 열두 마리의 황소 등에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다른 몇 개의 특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형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존시에 주님의 지시하에 그가 설계한 신전 건물을 본뜬 것입니다.

왜 신전에는 침례탕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디서나 침례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전에 있는 침례탕은 죽은 자를 위해서 수행되는 대리 침례 의식을 위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 그것도 기독교의 교리입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우리는 충실한 자의 조상에 관한 글을 읽게 됩니다. 계속하여 그 저자는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히브리서 11:40)라고 말하여, 산 자와 죽은 자의 구원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의 형태를 믿어 그들을 위해 촛불을 태우거

뉴질랜드 신전



영국 런던 신전



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대속하신 것도 일종의 대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고난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셨습니다. 그의 행위는 대리로 치른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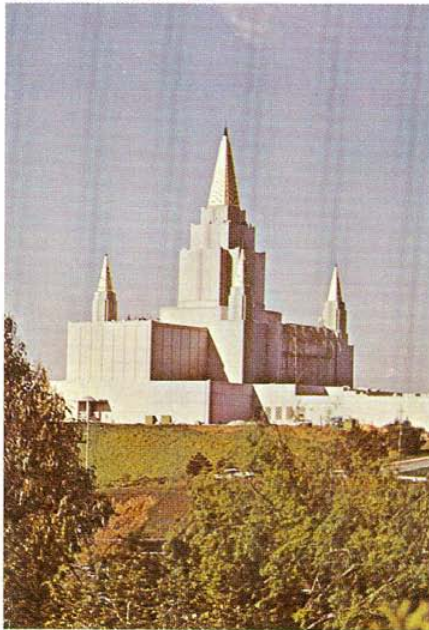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이사야서 53: 3-12 참조) 그는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마태복음 20: 28), 즉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 5-7 참조). 그는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 9-

10 참조)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사업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독교인의 교리입니다. 인간이 그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떤 종류의 사업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간이 고안해 낸 모든 형태가 다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을 구원하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자문해 본 다음, 죽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을 정하셨는가를 물어 보아야 합니다.

죽은 자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살아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음식을 잔뜩 차려 성묘를 하거나, 여행 도구나 전쟁 무기를 마련하는 것입니까?

캘리포니아주 오글랜드 신전



유타주 욕든 신전



복음을 배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하나님 면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전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구세주께서 사망한 후에, 그 육신이 아직 무덤에 있는 동안 영으로, 죽은 자의 세계로 가시어 그곳에서 전에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영에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전서 3:18-20)

그런 다음 그는 것처럼 전파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벧전 4:6)

이 놀라운 구절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1) 예수는 모든 인간과 같이, 육신과 영을 지닌 인격체였습니다.

(2) 예수가 죽은 자의 세계로 가셨을 때는, 그 영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살과 뼈의 몸을 벗어나진 했지만, 절리한 “나사렛의 목수”인 한 개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3) 죽은 자들은 (홍수 때에 죽은 자들도) 역시 예수 자신과 같은 영을 지닌 지혜로운 인간들이었습니다.

(4) 이 죽은 자들은 영의 세계에 살고 있기는 했지만, 육신을 지닌 인간과 같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동기와 기능을 갖고 있었으며, 늘 살아 깨어 있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분별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5) 예수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것은 구원을 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6) 복음을 듣게 되면, 그들은 자유로이

유타주 프로보 신전



워싱턴 신전. 워싱턴 디 시



거부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리하여 “육신을 지닌 인간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 있는 자의 구원을 위해 복음에서 정한 필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육신으로 생활하는 동안, 예를 들면 물 속에서 침례받는 것과 같은 구원의 의식과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침례가 그 만큼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여 “모든 의를” (마 3:5) 이루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했던 것을 지니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보다 더 많이 침례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1-2 참

조) 예수는 침례를 신앙과 마찬가지로 구원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시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게 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침례를 무시할 수 있었습니까?

침례가 산 자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죽은 자의 구원에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촛불을 켜거나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이, 침례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의식을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죽은 자가 침례받을 수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죽은 자를 대신해서 산 자가 침례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사실 그는 초기 기독교의 관습을 죽은 자의 부활의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브라질 상 파울루 신전



워싱턴주 시애틀 신전



부활을 의심한 자들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지뢰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고린도전서 15 : 29)

바로 이것이 죽은 자를 위한 참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산자를 위한 것과 똑같은 의식이 죽은 자를 위해서도 또한 적용되었습니다. 새로이 알려지게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산 자를 위해서는 저렇게 하라고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읍니다. 그는 그들을 모두 똑같이 대하셨으며, 영의 세계에 살고 있는 자들일지라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육신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일관성있게 죽은 자들을 심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전해진 만큼, 그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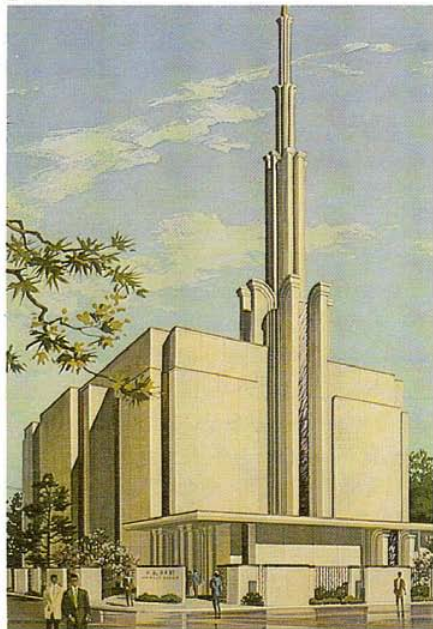
식은 그들을 위해서 활용되었습니다.

침례는 죽은 자든지 산 자든지 모든 자가 물에 잠기는 것을 필요로 하는 의식이었고, 죽은 자가 직접 침례를 받을 수는 없는 일이었으므로, 산 자가 죽은 자를 대신해서 합당하게 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말일에 회복된 복음의 일부로, 주님은 이 교리와 관습을 예언자 요셀 스미스에게 계시하셨으며, 그에게 이 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신전을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성도들은 일리노이주, 나부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을 들으면서, 그들은 그 도시에 신전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첫번째 침례탕을 세운 건물의 낮은 층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의도는 이러한 대리 침례를 위해서 아름답고 영구적인 용기를 갖자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것이 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것이 준

일본 동경 신전



서부 사모아 사모아 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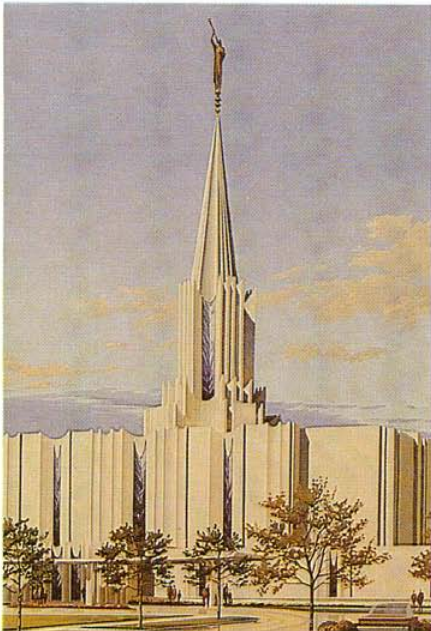
비되고 있는 동안에, 임시 용기가 목재로 만들어져, 그 안에서 죽은 자를 위한 성스러운 의식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지시하에 수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서, 베드로와 바울 시대 이래로 잊혀지긴 했지만, 주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며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없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같으며, 주님으로부터 인간은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하며, 주님의 면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같은 조건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세주는 몸소 자신이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곧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눅 20 : 38)고 말씀하시며, 모든

유타주 조던 리버 신전



인간을 똑같이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산 자가 침례받는 것은, 고대의 경우와 같이, 현대에도 정구적인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전 사업에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외에도 큰 관심을 갖게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분주한 곳으로 알려진 곳은 인봉실이었습니다. 각 신전마다 대개 이러한 방이 5, 6개씩 달려 있어 그곳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더 잘 이해하려면 말일성도에게는 가정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지적해야 합니다. 가족은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죽음으로 그들의 결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부에게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그들은 사망과 부활을 통해 영생으로 연결되는 가정 구성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됩니다. 가족 생활이 천국의 한 부분인 까닭에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가족은 훌륭한 가정에 따르는 모든 미덕과 축복을 영원히 지니게 됩니다.

말일성도의 교리에 의하면 주님께서서는 결혼 생활을 단지 육신 생활을 위한 임시로 정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설계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합당한 사람을 위하여 성스럽게 이루어질 경우 지상 생활이 끝나도 계속될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은 아담과 이브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며 아직 사망이 있지 않았던 때에 결혼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사망이 아무런 방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주님께 불순종한 이후로, 그들의 범법은 신체 상태에 변화를 가져와 사망을 가져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필멸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은 사망에 앞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임되었으므로, 죽음도 이겨내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결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담과 이브가 한 대로 영원한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결혼식이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으로 수행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백년 가약”을 맺는 결혼식은 일시적인 약속으로서 사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사망으로 부부가 헤어질 때까지만의 결혼식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때까지만은 효력이 있는 권능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들은 영원한 결혼을 집행할 권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부부를 영원히 결합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거나 봉하는 대로 하늘에서도 매거나 인봉할 권능을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19; 18:18; 요한복음 6:27; 로마서 15:28; 고린도후서 1:22; 에베소서 1:13; 4:30 참조)

사도들은 그러한 권능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신권의 권능으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영원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인간이 침례를 받게 되면,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침례는 지상 생활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침례는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구원되는 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까? 구원은 영원한 세계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성임된 사도들은 하늘에서도 매이는 행위를 지상에서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상에서 수행한 행위는 이 생에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죽은 후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이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도 매는 권능을 주셨겠습니까?

이 원리의 중요성은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의 원리를 다시 생각해 볼 때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복음이 죽은 자에게 주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할 수 있으나 육신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고 베드로가 한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과 육신 생활을 할 때 인간이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산자와 죽은 자는 동등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생과 앞으로 올 생애에서 신권의 권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이 생과 이후의 생을 다같이 매고 인봉할 권능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원리는 침례와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성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8, 2:24-25; 9:1, 7:35:11; 히브리서 13:4 참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상 생활의 상태가 있기 전에, 전능하신 분께서 몸소 첫 번 결혼을 집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에게 여자인 이브를 주셨으며, 그 후에 그들에게 지상에서 번성하여 가득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물론, 이 첫번째 결혼을 집행하는 데서 주님은 그 자신의 영원한 권능을 수행했으나, 그 후에 그는 성임한 사도들에게 바로 그 권능의 일부를 주시어, 그들이 영원히 계속될 의식을 수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권능으로 침례는 영원히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권능이 침례를 제정하신 같은 분에 의해서 제정된 결혼 생활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없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땅히 그래야 하며 사실 그러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 신권의 권세로 현세와 영원토록 함께 매이게 되고, 같은 방법에 의해서 자녀들도 그들의 부모에게 영원히 매이게 됩니다. 가족들은 이와 같이 하여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는 죽음으로 그들의 행복한 관계가 끝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들도 영원히 고아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침례로 그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인봉이나 결혼 성약은 그들을 가족 단위로 맺어 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아무리 천국이라 한들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는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는 사랑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한 유대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리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전에는 인봉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리는 까닭은 그 안에서 인봉 또는 맺는 의식이 수행되기 때문입니다. 그 성스러운 방 안에서 신부와 신랑은 제단에 무릎을 꿇고 영생을 위한 성스러운 결혼 의식으로 인봉 또는 맺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인봉되지 않은 부모는 그들의 자녀를 이 인봉실로 데려올 수 있으며, 가족은 성신권의 권능으로 영원히 함께 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아내도 죽음으로 결혼 유대가 끊어지긴 했지만 다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죽음으로 서로가 떨어져질 때 까지” 수행된 결혼도 영원한 토대로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죽은 자녀들도 역시 앞서 돌아가신 부모에게 되돌아가 가족이 후세에 다시 합치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지상과 하늘을 매는 권능은 이 생과 앞으로 올 생에서 다 같이 효력을 갖게 해줍니다.





니다. 그것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해 필요한 의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는 자에게 구속의 권능을 부여해 주는 것과 같이, 죽은 자를 위한 결혼의 인봉 의식을 베풀어, 산 자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자들을 대신하여 의식을 받습니다.

이러한 대리 사업은 누가 수행합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주님의 집은 질서의 집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혼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질서있게 수행될 것이며 모든 남녀가 세상을 떠난 그들의 친지들을 위해 이 사랑의 의식을 수행하도록 성임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행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의 질문으로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혈족보다 죽은 자를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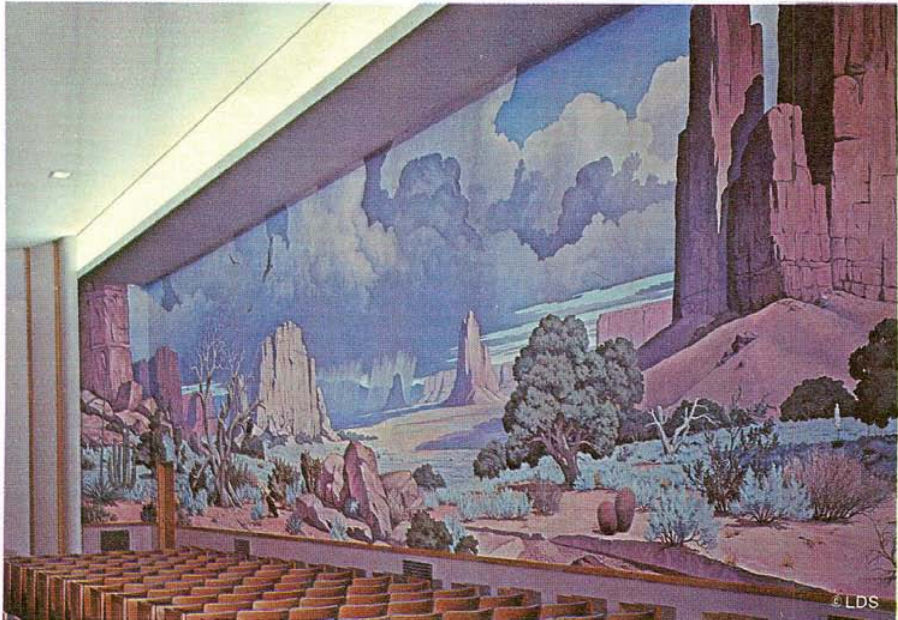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들을 돕는 일을 누가 더 열망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모든 가족이 계보 사업을 통하여 죽은 자의 의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알아 내야 합니다. 합당하게 확인된 사람들을 위해 합당하게 수행되는 의식은 주님께서 받아 들여 주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든 일은 그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지어진 집에서 수행되게 하십니다.

말일성도는 왜 신전을 짓습니까? 그것은 신전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 인봉 축복을 받고, 그들의 친척을 위해 대리 침례와 인봉을 받아,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대로 “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나 육으로는 인간의 표준과 기회에 따라 심판받게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리스 신전

현세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한번은 이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은 자를 위해 침례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위해 특별히 지은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와 친구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과 똑같이, 그들 각 사람을 위해서 개인별로 모든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정사, 6 : 318—20)

그러나 이 일이 현대에 시작되었다고 하면 옛날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 옛 배경은 어떠합니까?

성경의 위대한 예언 중에는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말일에 이 지상에 오리라고 말씀된 고대 예언자 엘리야의 현대 사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의 오심은 아주 중요

하므로, 그것을 받지 못하면 온 지상이 저주로 맞게 되리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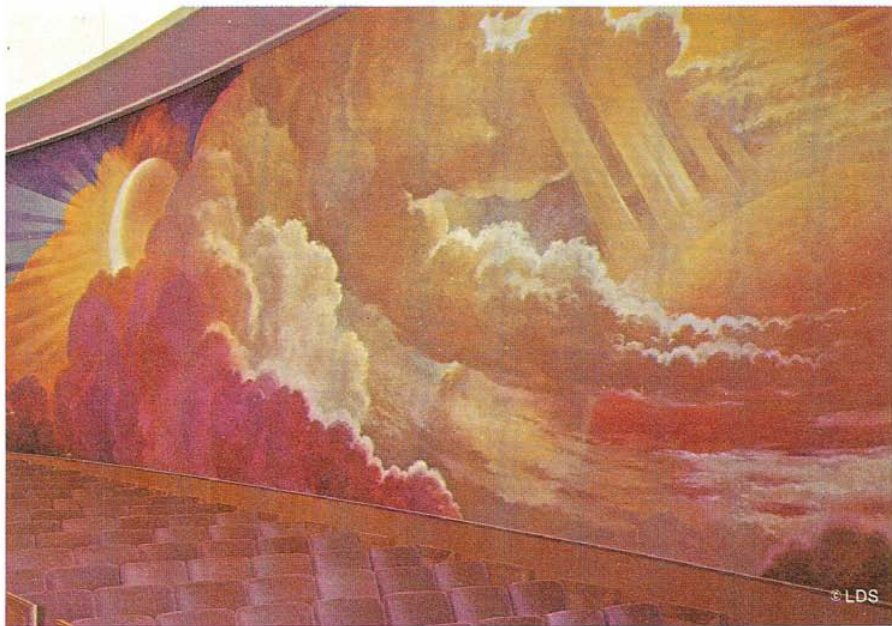
말라기는 짧은 기록에서 말일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라기 4 : 5—6)

말라기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하기 위해서, 현재와 과거의 세대 사이에 관심의 유대를 맺기 위하여, 엘리야의 사명을 명백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오신 명백한

창조실



목적은 살아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그들 조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의 목적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그가 과연 오셨는가는 아직도 해결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분명히 대답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간에 그들의 선조에 관해서 최근에 관심이 더 커지고 널리 퍼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살펴 보아도 그러한 관심을 찾아볼 수 없다면,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계보 활동이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그가 오신 직접적인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시작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예언자가 오시기 전에는 조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관심이 크지 않으리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의 사명의 결과가 이곳에 나타났다면, 그가 오셨고, 그의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예언은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지상에 계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서방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살아 있는 자의 사람의 마음이 그들의 선조에게 돌이켜지는 현상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근년에 와서는 인간의 족보를 탐구할 목적으로 세워진 수백 개의 협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조상의 기록을 찾는 데 종사하고 있습니다.

동경 신진 식당



© LDS

명예로운 정치가, 군인 또는 개척자의 후예라는 것을 토대로 하여 회원 자격을 정하는 애국 및 세습 단체들도 수없이 많습니
다.

계보에 관한 많은 잡지가 여러 나라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많은 발행 부수를 갖고 있는 신문들도 정기적으로 계보란을 실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세워진 큰 도서관에서도 계보 자료와 가족 역사에 관한 자료를 우선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영국, 불란서, 독일, 스웨덴, 덴마크, 놀웨이, 스코틀랜드 기타 여러 유럽 제국의 정부 당국에서 계보 자료의 보존을 요청해 왔으며 이 목적을 위해 기록 보관소를 세운 곳도 많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오심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말일에 나타나기로 예언된 이러한 관심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건축한 신전에서, 엘리야는 1836년 4월 3일에 인간에게 영화롭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거기서 물몬의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와 율리버 카우드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권능을 위임했습니다. 그때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게 하겠다는 말라기의 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마음속에 계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왔노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모든 계보 협회, 도서관 및 잡지, 모든 족보 기록, 그 페이지마다 적혀 있는 이름과 죽은 조상을 찾는 일에 종사하는 미국과 기타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엘리야가 왔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것은 말라기가 예언한 대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예언자의 사명이 완성됨을 나타냅니다.

그의 사명의 결과는 모두 우리 주위에 있

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확실합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왔습니다. 가장 위대한 예언의 하나가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시대의 표적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깝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관심은 엘리야의 오심의 진실성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가 현대에 모습을 나타내신 사람에게 그의 신성한 부름을 똑같이 간증해 줍니다. 커틀랜드 신전에서 엘리야의 방문을 받은 사람은 전능하신 분의 선택을 받은 분이었고 엘리야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제정한 사업은 하늘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논박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천사의 성역으로 권능을 부여받은 그들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조직했으며,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전세계에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부터 신권을 성임받았으며 그들은 회복된 단순한 복음의 원리를 새롭게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현대 사명의 결과로 이 지상에서 두 갑절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한때 이 지상에 살다가 이제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인식하기 위해 가족 역사와 족보를 마련하는 범세계적인 활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이 신전을 짓고, 그리스도에게 오는 모든 자들이 그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성스런 의식을 그 안에서 열심히 행하는 활동입니다.

이 신전 사업은 범세계적인 계보 탐구로 조상을 알지 않으면 수행될 수 없습니다. 이상 두 가지 활동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정하여 성도들이 수행함으로써 나란히 받을 맞추어 주님의 사업을 성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물몬이 신전을 짓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

신전을 향해서

존 에이 윌소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1872—1952)

신전 경배에 대한 윌소 장로의 기사 중에서

신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주께서 지상을 방문하실 때, 주님은 그의 신전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지상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가족이 가정에서 함께 하듯이, 주님의 가족이 되기에 합당한 회원은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하듯이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신전은 가르침을 베푸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원리가 알려지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깊은 진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영으로 신전에 들어와 주의를 집중시킨다면, 복음의 지식과 지혜로 충만하게 되어 나가게 됩니다.

신전은 평화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란스런 바깥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로지 영적인 사항에 관심을 쏟게 되므로, 영적인 현실에 온 마음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신전은 성약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를 선언하고 우리 자신의 축복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 복음의 귀한 지식을 활용하기로 약속합니다. 단순한 의식은 우리가 복음의 은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신전에서 나가게 도와 줍니다.

신전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기만 하다면, 현세에서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늘의 부모가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이해하게 도와 줍니다. 신권의 권능은 새롭고 큰 폭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신전은 하나님에 관한 의식이 베풀어지는 장소입니다. 인생의 커다란 신비, 곧 인간의 머리로는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가 여기서 명백해집니다. (1) 나는 어디서 왔는가? (2) 나는 왜 여기 있는가? (3) 이

생이 끝나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서 인생의 문제의 모든 사항에서 나오는 영의 필요성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전은 계시의 장소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계시를 주시며, 모든 인간은 생활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이나 모든 도움은 직접 또는 간접적이거나, 주님에게서 옵니다.

주님은 직접 이곳에 나타나지 않으신다 해도, 성신에 의해서, 신권을 지닌 지상의 인간에 의해서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 영에 의해서 그들은 이 지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이끌어 나갑니다. 신앙과 기도로 이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오게 되는 모든 인간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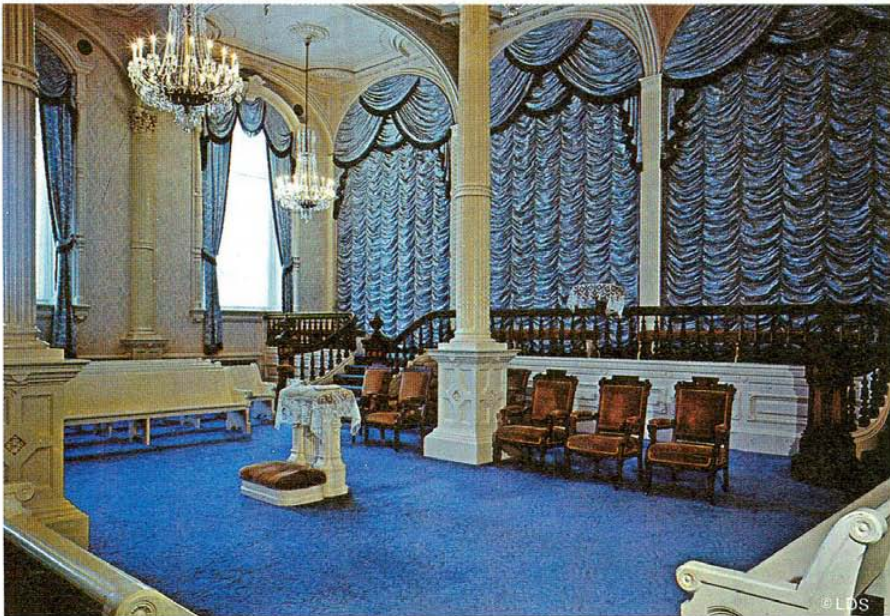
주님의 집이요, 신권의 가르침과 평화와

성약과 축복과 계시의 장소가 되는 신전이 있다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감사하고 그러한 영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가슴속에 가득 차고 넘쳐 흘러야 하겠습니까.

그 은사와 축복을 주는 신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 조건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합당한 모든 사람은 감독에게 신전에 들어갈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행되는 의식은 성스러운 것이며, 신비스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깨끗이 하여 그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교회의 모든 회원은 신전을 이용하고 그 특권을 누리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장소에서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함을 스스로 입증한 모든 사람에게 성스러운 의

유타주 맨타이 신전 별의 왕국실 내의 제단



식이 주어집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나 신전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침례, 신권 성임, 결혼, 산 자와 죽은 자의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 복음의 가르침, 진도 사업을 위한 평의회, 그밖에 복음에 속하는 모든 것이 여기서 수행됩니다. 진실로, 신전에서 모든 복음이 요약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처음으로 신전을 한번 “둘러 보고” 신전 의식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반복이라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신전 사업은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행해야 하며, 그런 다음에 환경이 허락하는 한 자주 이미 세상을 떠나신 조상이나 친구들을 위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은 죽은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며, 엔다우먼트의 본질과 의무와 의미에 대한 것을 산 자의 마음 속에 심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엔다우먼트를 늘 마음 속에 새롭게 새겨 둘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축복의 영향을 받으며 인생의 의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전 의식은 교리와 성약 124편 39—41절로 알려진 계시에서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기쁨부음, 너희셋음, 너희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너희 성회, 레위의 아들이 행하는 너희 제물의 기념, 하나님과 교통하는 너희 가장 거룩한 곳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너희 율례와 심판, 계시의 시작과 시온의 기초, 시온의 모든 도시의 영광과 존귀와 엔다우먼트, 이 모든 것은 나의 거룩한 집의 의식으로써 제정되나니, 나의 백성들은 이러한 집을 지어 나의 거룩한 이름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항상 받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으로 이 집이 건립되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그곳에서 나의 백성에게 나의 의식을

나타낼 수 있게 할지이다.

“이는 내가 창세 이전부터 숨겨 온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한 일을 나의 교회에 드러내 보이려 함이라.”

신전에서는 모든 사람이 흰 옷을 입게 됩니다. 흰 것은 순결의 상징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권리가 없습니다. 그 밖에도, 통일된 복장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함을 상징합니다. 신전에서는 기술자와 은행가, 학식있는 자와 무식한 자, 왕자와 극빈자가 나란히 앉게 되며, 그들이 영의 아버지인, 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생활한다면, 똑같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인간은 신전에서 영적인 합당성과 이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은 주 앞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신전을 둘러 보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로운 경험입니다. 그것은 고무적이고, 여러 가지를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기를 줍니다. 당사자는 그의 사업에 대하여 크게 이해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신전의 율법과 엔다우먼트 성약은 아름답고, 도움이 되며, 단순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관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가르쳐지지는 않았으나,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인간의 영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닦는데 합당한 순서로 그들을 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요셉 스미스가 육신의 인간을 능가하는 권능에 의하여 인도되었다는 우리의 신앙을 정당화시켜 줍니다.

신전에 들어와 신앙으로 봉사하며, 주님의 뜻에 완전히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영화로운 경험을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빛과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여 이 후에 필요하게 될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디서든 그러하지만, 특히 신전에서,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복음에 주의를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일에 특별

한 목적을 위해 다시 세워졌다는 확신이 커지게 됩니다. 신전 사업은 우리가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서1:39)이 기록하신 과업에 합당하게 되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신전 경배는 영원히 복음의 일부가 됨.

요셉 스미스가 복음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는 명을 받았을 때, 신전 건설과 신전 경배는 그의 생애에서 거의 최초, 최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직후에는 인디펜던스에 신전 부지가 헌납되었으며, 커틀랜드 신전이 건축되어 완성되자 그곳에서 기이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나부 신전이 건립되어 신전에서 엔다우먼트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신전 부지도 헌납되었습니다. 신전에 관한 많은 계시는 모두 이 말일에 회복된 복음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주로 관심을 가진 “창세 이전부터 감추인” 의식을 베풀 수 있는 신전을 세우고, 건립하고, 완성시키는 일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예언자에게 신전이 지어져 사용되지 않으면, 구원의 계획은 온전히 수행되거나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시대이나 모든 백성과 민족들간에 신전 건립과 신전 경배 사상을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완전한 복음이 아담에게 계시 되었으므로, 모든 종교와 종교적 관습은 아담에게 주어져, 그에 의해서 축복사에게 전해진 진리의 자취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신전의식은 고대에서 필요한 대로 주어진 것이 분명하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들은 자연히 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 이전에 계획된 복음의 영원한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서 항상 신전의 건축과 활용을 생각해 왔는가를 분명히 이해합니다.

인간의 영원한 본성. 신전 경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계획과 그것이 신전 경배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합

께” 있었으며, 이 지상에 이르기 전에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만족한 전세의 생활에서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태어나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강제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의 높은 울림에 순종한다면, 다른 존재의 영역으로 넘어가서도, 영원히 앞으로 그리고 위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에 대한 구원의 계획에는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은 모든 인간이 복음을 가르침 받고, 주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여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기 전에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원리가 포함됩니다. 그 일이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일은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들은 언제쯤이면 마지막 날이 와 지상이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냐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인간은 다니엘과 기타 여러 예언자의 말씀을 들어 앞으로 닥쳐 올 사건의 날짜를 알아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할 때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즉,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다 마쳤을 때를 말합니다. 그 전이나 그 후도 아닙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면, 그 날은 끝나게 되고 새로운 행동 단계가 세워지게 됩니다. 구원의 계획과 일치하는 일을 한 지상의 자녀들에게 과업이 지명되면, 주님은 그의 약속을 기억하실 것이며, 지구의 끝이 와, 새로운 진보의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지상을 여행하고 있는 우리는 영원한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생활은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목적은 끝이 없습니다. 신전은 그 여행과 목적에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19¹⁸년 10월 3일, 나는 내 방에 앉아 경전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한 것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무한하신 속죄의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의 구속주로 온 아들이 보여 준 무한하고 크신 사랑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를 통하여 복음의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내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복음이 전파된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외에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초기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펴고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을 읽었으며, 내가 읽을 때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더욱 구절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음

동경 신전 일층 휴게실 및 사무실



©LDS

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
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
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
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
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육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
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
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 몰로 말미암
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뿐이니 겨우 여
덟 명이라”(벧전 3: 18-20)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
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
이니라”(벧전 4: 6)

내가 경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깊이 생각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나
의 이해의 눈이 열렸으며, 나는 크고 작은
죽은 자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수
많은 의로운 자의 영들이 한 곳에 모여 있
었습니다. 이들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간증에 충실하였고, 하나님
의 아들의 무한하신 희생의 모형에 따라 제
물을 바쳤으며, 구속주의 이름으로 말미암
아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
비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는 소
망을 굳게 간직하고 현세를 떠난 자들이었
습니다.

나는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
있으며, 그들의 구원의 날이 임박하였으
로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데 모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의 세계에 오
시어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 나는 그들의 구

동경 신진 예배당



© LDS

속을 선언하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잠들고 있는 육신의 뼈와 근육과 살이 완전한 모양으로 회복되고, 영과 육이 결코 분리되지 않게 결합되어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그들의 구원의 때를 기뻐하고 기다리며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어 충실하였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 그리고 타락에서 구원받고 회개의 조건하에서 개인의 죄로부터 풀려나는 인간의 구속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한 영들에게는 가지 아니하셨으며, 육체로 있을 동안 자신의 몸을 더럽힌 불의한 영들과 회개하지 않은 영들에게 그의 음성을 높여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고대 예언자들의 간증과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역한 영들은 그의 임재하심을 보지 못하였고,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이 거하는 곳에는 아들이 있었으나 의로운 영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깃들여 있었으며, 성도들은 그들의 구속을 기뻐하였고, 무릎을 꿇어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과 지옥의 사슬로부터 구해 낸 그들의 구속주와 구원자라고 말하였고, 그들의 얼굴은 빛났으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생기는 광채가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였습니다.

나는 이상히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구세주께서 삼여 년간 이스라엘 집의 유대인과 다른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온 힘을 다해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시고 회개하라고 외치셨으며, 심지어 그가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의 위대한 권세와 권능으로써 진리를 선포하셨으나 그의 음성을 귀기울여 듣고 그와 함께 있음을 기뻐하며 그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 소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배픈 그의 성역의

기간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때까지의 짧은 기간뿐이었습니다. 또한 나는 전에 노아의 날에 하나님께서 오래 잠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전파하셨다는 베드로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가 그토록 짧은 기간에 그 영들에게 전파하고 그들 가운데서 필요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가능하였을까 하고 이상히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이상히 생각하고 있을 동안 나의 눈이 열리고 나의 이해력이 새로와져서 나는 주님께서 악한 영들과 진리를 거부하고 순종치 아니한 영들을 가르치려 그들에게 친히 가지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영들 중에서 택하여 그의 군대를 조직하시고 사자들을 임명하시어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시고 그

동경 신전 신부 대기실



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진실로 모든 인간의 영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도록 위임하셨으니, 복음은 이렇게 죽은 자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나아가 주님의 은혜의 날을 알리고 포로 된 자들,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영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죄를 짓고 죽었거나 예언자들을 배척하며 범법하고 죽은 모든 자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영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죄를 버리는 회개, 죄 사유함을 위한 대리 침례, 안수례에 의한 성신의 은사를 배웠으며,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의 다른 원리도 배웠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죽은 자들 중 충실한 영에게는 물론 불의한 영에게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회생을 통하여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게 된 것은 우리의 구속주께서 영의 세계에 머무르면서 시간을 내서 어 육체로 있을 동안 그를 증거한 예언자들의 충실한 영을 가르치시고 준비시켜, 그들로 하여금 구속주께서 배반과 범법때문에 친히 찾아갈 수 없었던 모든 죽은 자에게 구속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구속주의 종들의 성역을 통하여 죽은 자들도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의로운 영들과 함께 모여 있는 위대하고 강한 영들 가운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요, 만인의 아비인 시조 아담이 있었으며, 우리 인류의 영에스러운 어머니 이브도 여러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참되고 살아

동경 신전 의식 참여자 탈의실



게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왔던 많은 충실한 딸들과 함께 있었고, 첫 순교자인 아벨도 그곳에 있었으며, 그의 동생이며 그의 부친인 아담을 꼭 밟고 힘센 자인 셋도 있었고, 홍수에 관해 경고한 노아와 위대한 제사장인 셈과 충실한 자들의 아비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입법자인 모세가 있었으며, 또한 구속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갇힌 자에게 옥에서 놓임을 전파하도록 기쁨 부음을 받으시리라고 예언한 이사야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더우기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옥체를 입고 산 자로 다시 나오게 될 마른 뼈들이 있는 큰 계곡을 시현에서 본 에스겔도 있었으며,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하나님의 왕국이 말일에 세워지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예언한 다니엘도 있었고, 변형의 산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일라이어스도 있었으며, 또한 엘리야의 오심에 관해 증거한 말라기도 그곳에 있었으며, 모로나이도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엘리야가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리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자녀들의 마음에 그들의 아비에게 주어진 약속을 심어 주도록 임명된 자였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온 땅이 황폐하게 되도록 저주로 그 땅을 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구속과 자녀들을 그들의 부모에게 매이게 하는 인봉을 위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신전에서 행해질 위대한 사업을 미리 보여 주었습니다. 이 모든 영들 이외에 진실로 니파이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증거한 예언자들도 수많은 회중과 함께 하여 그들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들의 영이 오랫동안 옥신에서 떠나 있음을 하나의 속박으로 여겼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영들을 가르치셨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들이 부활할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어 그의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불사불멸과 영생의 관을 쓰고, 그때부터 주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일을 계속하고, 주님을 사랑한 자들을 위해 예비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 나의 부친 하이람 스미스, 브리감 영, 존 테일러 그리고 윌포드 우드럼도 있었습니다. 이외에 말일의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놓는 데 참여하기 위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나오도록 예비된 훌륭한 영들도, 또한 영의 세계에 있었으며, 신전을 건립하여 그곳에서 죽은 자의 구속을 위한 의식을 집행하는 일에도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통치자가 되도록 태초에 택함을 받은 고귀하고 위대한 영들에 속한 자들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진실로 태어나기 전에 그들은 다른 많은 영들과 함께 영의 세계에서 첫 교환을 받았으며,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주님의 정한 때가 이르면 나올 수 있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현세를 떠나는 이 경륜의 시대의 충실한 장로들이 회개와 하나님의 독생자의 회생을 통한 구속의 복음을 죽은 자의 영들이 거하는 광대한 세계에서 어둠 가운데 죄로 속박되어 있는 영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개하는 죽은 자의 영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집행되는 의식에 따름으로써 구속받을 것이며, 또한 그들의 범법에 대한 형벌을 받고 깨끗해진 후에 그들의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리니, 이는 그들이 구원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이 내게 나타내졌습니다. 나는 이를 증거하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이 시현에 관한 기록이 참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아멘. *

아시아의 첫 신전

동경 신전은 아시아에서는 처음 세워진 신전이며 전세계에서는 18번째가 된다. 이 신전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필리핀, 홍콩 등을 포함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약 125,700명의 성도를 위하여 지은 것이다.

이 신전은 동경의 중심지 근처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지역인 미나토꾸의 미나미 아사부에 위치해 있다. 신전의 앞쪽에는 푸르게 우거진 수풀로 둘러싸인 역사적인 아리수가와 노미야 기념 공원이 있으며, 이 지역에는 또한 학교가 많다는 특색이 있다. 이 아름다운 주거 지역 가운데 현대 건축 양식으로 세워진 불가리아, 스위스, 노웨이

대사관 건물이 있는 이 조용한 환경은 주님의 신전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동경에는 신전 근처에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가진 장소가 거의 없으며, 위엄이 있는 이 신전은 주위의 모든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한때 극동 지역 전체를 관리하던 선교 본부였던 선교부장 사택 부지도 지금 이 신전의 일부가 되었다. 따라서 신전 부지 자체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행한 선교 사업의 발전에 관한 기록이 그 땅의 지면에 새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교통 편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신전의 위치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아리수가와 공원에서 바라본 동경 신전



부지를 택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편리함이었다.

이 신전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다. 1층은 약 300명 정도이며, 그 윗층은 약 200명 정도이다. 이 건물은 탑을 제외한 높이가 약 20미터이며, 채색 유리로 장식한 탑의 높이는 약 55미터이다. 구조상으로 보면 이 건물은 지진에 견딜 수 있게 다시 보강한 콘크리트 구조이며 표현은 회색의 화강암을 입혔다. 이 건물의 내부는 다음과 같다.

1층에는 로비, 신전장단 사무실, 신전 결혼을 돕는 자매용 사무실, 젊은이 대기실, 어린이 방, 신전복실, 식당, 부엌, 세탁실 등이 있다. 또한 별도의 출입구만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신전복 배부 센터가 있다.

2층에는 남자 탈의실과 여자 탈의실, 신부 대기실, 신랑 신부를 위한 강의실이 있

다. 신전장 부처의 사택은 2층에 있으며, 출입구는 별도로 도로쪽으로 나 있다.

3층에는 12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과 영원한 결혼을 집행하는 인봉실이 다섯 개 있다. 또한 신전 보조원들을 위한 탈의실과 휴게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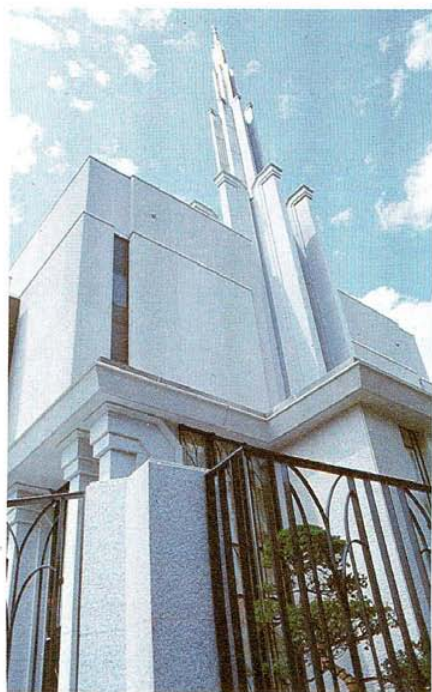
4층에는 각각 백 명씩 수용할 수 있는 두 개의 의식실과 해의 영광실이 있다.

지하실에는 침례반이 있는데, 이것은 12필의 황소 조각의 등 위에 놓여 있으며 또한 보일러실과 저장소가 있다.

신전 마당은 전통적인 일본식 정원으로 꾸며졌다. 이곳은 통행인들이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철제 울타리를 둘러 놓았다.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이 신전은 1978년 4월에 착공하여 2년 2개월만에 완성되었다. 이 기간에 이 건축



동경 신전 정문 입구

위로 바라본 동경 신전

공사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나카다 형제는 건축 감독으로서 이 신전 건축 공사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 되었는데, 그는 “신전을 짓는 일을 통하여 선교 사업을 행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기회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신전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에게 건설 공사의 소음으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공사 시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배려는 교회 표준에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 표준에 입각하여 신전 건축에 관련된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을 지켜서 작업 시간 전체를 통틀어서 신전 부지에서는 금연을 하였다. 신성한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예의 범절

을 어디에서나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

나카다 형제는 신전 건축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뿌린 진리의 씨앗이 어느 날엔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동경 신전은 그 지역에서 가장 이채로운 건물에 속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신성한 건물의 거룩한 영향력이 주변 지역에 골고루 미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55미터나 되는 높은 탑은 상당히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다. 이 탑에 직사 광선이 비치면 은백색과 옐로우색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색이 나타나게 된다. 이 건물의 외벽은 기후현(지방 이름)에서 채석한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연한 회색을 띤 돌이 장중한 분위기를 더해 준다. 겉으로 본 이 신전의 모습은 곧 이 신전의 기능, 즉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영성을 높여 주고 영감을 주는 데에 잘 어울리고 있다.

신전의 내부를 들여다 보면 폭넓게 밝은 빛이 내부 공간을 꽉 채우고 있다. 각 방과 홀에 깔려 있는 카아펫은 각각 그 벽의 색깔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 위를 걸을 때 느끼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각은 깊은 안도감과 평화스러운 느낌을 준다. 그 카아펫은 대부분이 미국에서 수입한 것이다. 이외에도 채색 유리, 영사막, 음향 기재 등을 미국에서 수입했다. 호화로운 샹데리야는 서독에서 조각한 것이다. 모든 재료는 질과 가치를 보고 주의깊게 선택한 것이다.

신전에 비치한 모든 가구는 일본에서 특별히 주문해서 만들었다. 그 하나하나를 조각할 때 독특한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사실상 그것은 모두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동경 신전을 지을 때 사용한 모든 자재는 최고의 품질이며, 건물 관리 체제나 냉난방 방식이나 발전 시설 등은 최신의 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졌다. *



동경 신전 해의 왕국실

기쁘찌 장로의 인사 말씀

1975년 8월 동경 지역 대회에서 스페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시아에 사는 모두 주민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스테이크 부장, 선교부장 및 지도자들과 함께 이 매우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토론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십이사도의 한 분인 매튜 카울리 형제는 아시아와 일본에 신전이 서리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신전을 지을 수 있는 시절이 오기를 예타게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에게 전 아시아를 위하여 일본 동경에 신전을 건립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일본 지역 대회, 1975년 8월 9일, 2페이지)

우리가 이 새로운 신전을 헌납할 성스러운 때가 가까와짐에 따라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방문객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총관리 역원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열두 분의 교회 대관장 모두가 동경에 있는 신전에 관하여 영광스러운 꿈을 꾸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975년 8월 지역 대회의 폐회 모임에서 킴블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계는 돌아가신 분들의 세계와 그리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수시로 지구를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나는 요셉 스미스, 브리감 영 및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을 포함한 교회의 모든 역대 대관장들이 오늘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일본 지역 대회, 2페이지)

일본에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오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와 총관리 역원들을 반가이 맞아

들일 날이 가까와짐에 따라 당시 그 대회에서 킴블 대관장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합니다. “신전을 헌납할 때 여러분을 보기 위해 다시 올 수 없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일본 지역 대회, 3페이지) 킴블 대관장님이 이 거룩한 신전을 주님에게 헌납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 이래로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인 지금, 오래도록 고대하던 동경 신전은 헤롯왕이 통치한 이래로 아시아에서 처음 세워지는 신전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19—20년 사이 헤롯 치세 18개월 이후로 처음 세워지는 신전입니다. (조세퍼스 XV15, 5 및 6; XX.)

오늘 나는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이 매우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당시 사도였던, 히버 제이 그랜트 장로가 자신이야말로 이 위대한 책임을 맡아서 최초로 일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에 건의한 것은 1901년 2월 14일의 일이었습니다. (일지로 기록한 역사, 1901년 2월 12일, 1페이지)

히버 제이 그랜트 장로와 함께 루이스 에이 켈시 장로, 호러스 에스 엔사인 장로 및 엘마 오 테일러 장로가 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901년 7월 24일 오후 11시 30분에 솔트레이크시티를 출발하여 7월 30일에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참된 사자들은 신비에 싸인 비기독교 국가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1901년 8월 13일에 이 낯선 나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 일본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신전을 헌납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대

하면서 나는 우리 나라의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영적이고 의미깊은 선언을 발표해야겠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히버 제이 그랜트 장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동반하면서……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도와 성직자로서 우리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에 유의해 주시도록 부탁하며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종과 족속과 지파와 민족은 남녀 누구나 형제요 자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것은 형제애의 정신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교 사업은 하나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말씀과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권능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이름으로 행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기 민족과 국가의 유익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빛은 하늘에 있는 별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들이 나타날 때 그 시간과 조건에 적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더 밝은 빛과 더 높은 진리가 계시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계시를 받았으며,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라는 명을 받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자비로써 그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 준 그 신앙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다시 한번 지상에 그의 교회를 조직하셨으며, 기독교적인 신앙을 선포하도록 그의 택하신 종에게 초기의 것과 똑같은 권능과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모든 세대의 선전자와 현인과 예언자들에 의한

것입니다.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말씀하셨으며, 그의 백성들에게 고통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나라에 있는 그의 자녀들이 어떤 계급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한 어떤 신조를 갖고 있고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모두 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참 뜻을 갖고 그에게 나아가며 그로부터 죄사함을 위한 권능을 받은 사람에게 의하여 물론 침례받으라고 명하고 계시며, 그의 대리자인 사자의 손으로 안수를 받으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신을 부여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은 순종하는 모든 영혼에게 새로운 탄생을 주고 하늘 왕국의 문을 열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능에 의하여 일본 주민에게 하늘 왕국의 문을 열어 주는 거룩한 열쇠를 돌립니다. 우리는 그들 모두에게 의의 아들로부터 발산되는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며 인간의 권능에 의하여 생긴 것도 아니며 오로지 참되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위엄과 영광 중에 다스리시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조가 받은 선한 것과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은 황혼의 회미한 빛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한낮의 햇빛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눈부신 진리를 전합니다. 빛과 진리로 나오시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한 길을 걸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화평과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며 여러분은 지상에 위대한 제국을 설립하기 위하여 열국과 모든 족속 가운데 위대하고 순결한 사람들과 연합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며, 그 후로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의롭고 구속받은 사람들과 함께 거할 것이며, 여러분의 영광과 지배력은 천국의 것으로서 영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히버 제이 그랜트, 여러분을 섬기는 자)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축복”(626페이지)과 “거룩하고 영원하신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627페이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신전에서 온전한 축복과 의식을 받음으로써 화평과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빛과 더 높은 진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펼치는 광경 중에서 거의 이해할 수조차 없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절정의 시대 이래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신전을 갖는 온전한 축복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랜트 대관장님과 동반자들이 도착한 지 벌써 79년이 지나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 신전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곳에는 성신권의 열쇠가 성임되어 있음이니, 이로써 너희로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교성 124 : 34)

무한한 과거로부터 아시아에서 살았던 모든 무리들이 바야흐로 이 거룩한 동경 신전에서 이 확실한 지식과 빛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기쁨부음, 너희 셋음, 너희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너희 성회, 레위의 아들들이 행하는 너희 제물의 기념, 하나님과 교통하는 너희 가장 거룩한 곳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너희 율례와 심판, 계시의 시작과 시온의 기초, 시온의 모든 도시의 영광과 존귀와 엔다우먼트, 이 모든 것은 나의 거룩한 집의 의식으로써 제정되나니, 나의 백성들은 이러한 집을 지어 나의 거룩한 이름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으로 이 집이 건립되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그곳에서 나의 백성에게 나의 의식을 나타낼 수 있게 할지어다.”(교성 124 : 39—

40)

“이는 나를 의롭게 섬기고자 하는 순결한 백성을 일으켜 내게로 세우려 함이라.”(교성 100 : 16)

그러므로 이제 일본에 시온의 스테이크를 세우고 모든 경계에 이르기까지 시온의 스테이크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함께 단결합시다. “또 해의 왕국의 율법이 요구하는 율화 단결에 따라 단합합시다.”(교성 105 : 4 참조)

“형제들아, 이 위대한 대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려느냐? 전진하여 물러서지 말며, 용기를 내라. 형제들아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자. 기뻐하라. 크게 즐거워하라. 세상 사람들아, 노래 불러 울려 퍼지게 하라. 죽은 자여, 임마누엘 임금께 영원한 찬양의 찬송가를 부를지어다. 저는 창세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를 그 옥에서 속량해 줄 수 있게 정하셨느니라. 이는 갇힌 자가 석방될 것이니라.

“산들아, 기뻐 소리지르라. 너희 모든 골짜기여 크게 외치라. 너희 모든 바다와 마른 땅이여, 너희 영원하신 임금이 행하신 기이한 업적을 말하라. 또 너희 강과 시내와 개천이여, 즐거움으로 흘러내리라. 숲이여, 들의 나무여, 주를 찬양하라. 너희 굳은 바위여, 기쁨의 눈물을 흘려라. 해와 달과 새벽별이여, 함께 노래하라.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아, 기쁨으로 외치라. 영원한 피조물아,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선포하라. 내가 거듭 이르노니,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은 얼마나 영화로운고. 그 음성은 우리의 귀에 영광과 구원과 존귀와 불사 불멸과 영생과 왕국과 주권과 권능을 고하도다.”(교성 128 : 22, 23) *



신전장 메시지

드웨인 엔 앤더슨 신전장

어느 날 나는 브리감 영 대학교의 내사 물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학문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2월 15일이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킴블 대관장님이 그날 오후 4시에 그분의 자택으로 나를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집에 가서 아내에게 킴블 대관장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자, 아내는 웃으며 놀리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연자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내 가슴은 방망이질하는 듯했습니다.

“형제님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건립된 신전의 신전장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신성한 부름을 받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며 특권입니까! 나는 곧 마음속으로 나의 약점과 무능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어에 대한 이해력도 부족했거나와 다른 결점도 도저히 극복해 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니파이일서 3장 7절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이성구는 나에게 이 부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 1 보좌로 유구스 이노우에 형제를, 그리고 제 2 보좌와 기록 서기로 야수히로 마쭈시대를 택하여 신전장단은 큰 힘과 균형을 얻게 되었습니다. 태너 부대관장과 롬비 부대관장의 도움을 받아 킴블 대관장님이 나를 신전장으로 성별하시고 인봉하

는 권세를 부여하여 주신 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후 우리는 가정과 개인적인 일들을 정리하였고 뒤이어 우리는 솔트레이크 신전과 프로보 신전과 하와이 신전에서 성실하고 헌신적인 신전 보조원들에게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 본으로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1980년 6월 8일 우리는 나라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많은 성도들이 환영 피켓을 들고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피켓에 적힌 “집으로 돌아오심을 환영합니다.”라는 글귀를 보고 감격했습니다. 참으로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여기에 오게 되어 큰 기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이 장엄한 건물을 짓기 위해 오랫동안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헌신적인 회원들과 비회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이 특별한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노고를 기뻐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본에 도착한 이래 나는 과거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랜트 대관장님이 장로로서 일본 땅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발을 디뎠을 때의 어려웠던 상황에 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24년 선교부가 폐쇄되기까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1951년도에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갔던 때를 회상해 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호구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



동경 신전 인봉실

다. 당시에 일본에서 교회의 완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후 1962년에 일본을 방문했던 일이 회상됩니다. 그때의 큰 발전과 성장을 보고 가까운 장래에 와드와 스테이크가 세워질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복음 프로그램을 완전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권이 필요했습니다. 1965년에 신권 지도자들이 부인을 동반하여 전세 비행기로 하와이 신전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성도들이 신전의 영과 메시지를 통해 흘린 기쁨의 눈물은 교회의 초기 역사에서 커틀랜드 신전 헌납시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능가한 것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건에 뒤이어, 수천 명의 충실한 일본 회원들은 자신과 그들의 죽은 조상들을 위해 거룩한 의식을 행하기 위해 하와이와 솔트레이크시티로 먼 여행을 했습니다. 그후에 스테이크와 와드가 조직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주님을 기쁘게 했고, 예언자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제 이 영광스러운 신전은 완공되었으며 아시아 대륙에 영성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고 신성한 의식에 참여할 때 신전은 회원들에게 보다 큰 회생과 헌신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어떠한 회생보다도 더 큰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족은 강화될 것이며 개인적인 생활이 풍요롭게 되고, 인생의 목적은 보다 선명해질 것이며 인봉의 유대는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동경 신전장단은 신전 봉사에 헌신할 것을 약속드리며 일본과 아시아 대륙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에 사는 성도이건 주님의 집에 가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고 자신의 성스러운 의식과 그것에 따르는 풍요로운 축복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



